

# 한인뉴스

Korean News(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haninnews123@gmail.com

2009. 7

통권 157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시원함의 최강자,  
초절전의 최강자.  
“농담 아닙니다”!

정말 실망이야...

아 피곤해...



**Auto Clean**  
에어컨  
자동세척



**Ionizer**  
먼지 및  
공해 제거



**Plasma Filter**  
박테리아&바이러스  
제거(조류독감바이러스 포함)



**Energy Saver**  
최소 전기 사용



에어컨 성능과 공간면적 비율	
<b>670W (1pk)</b>	18m <sup>2</sup> 공간면적
<b>320W (1/2pk)</b>	10m <sup>2</sup> 공간면적



인도네시아 기후환경 하  
조류독감바이러스 파괴 증명  
보고농과대학 실험결과,  
99.9% 안에 61,000 조류독감균 파괴 증명됨



<b>CIC</b> 365일	LG 고객정보센터, 365일 서비스	
	자카르타 (021) 727-99777	0-800-123-7777 (무료전화)
	수라바야 (031) 549-0777	

**670W 320W**  
Super dingin, super irit



# 바다로 미래로 세계로



## 세계의 바다를 우리의 바다로 만들겠습니다

STX는 해운물류, 조선기계, 에너지 전문 그룹으로서

해양대국의 위상을 높여 갑니다.

세계 5대 선사, 조선소, 엔진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한

STX의 힘찬 도전은 계속됩니다.

World Best **stx**

# 고객님의 행복을 더욱 키워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행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은행 문지호 / 이보미 고객님



## 고객님의 행복을 응원하는 상품안내

- ▶ 일반여신수신 및 외환업무
- ▶ 우리성공시대 적금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전용 인터넷뱅킹 서비스
- ▶ 해외송금 당일수취 서비스(한국 우리은행으로 송금시)
- ▶ 자카르타,망거랑,찌까랑 상시 한국직원 상주 및 상담서비스



**PT. BANK WOORI INDONESIA**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자카르타)  
16th Floor, Jakarta Stock Exchange Building,  
Jl. Jend. Sudirman Kav.52-53, Jakarta 12190  
Tel: 62-21-515-1919 Fax: 62-21-515-1477,1488

우리은행 망거랑 출장소  
Ruko Pinangsia Block H No.1  
Lippo Karawaci Tangerang 15139  
Tel: 62-21-5577-2345 Fax: 62-21-5577-6363

우리은행 찌까랑 출장소  
Cikarang Commercial Center Block A1~A2  
Jl. Cikarang-Cibarusah KM.40 No.2 Cikarang Selatan Bekasi,  
Tel: 62-21-8983-5720 Fax: 62-21-8983-5721



Your dream  
can come true  
with **PT.SERIM**  
Indonesia

Fill the difference with  
**PT.SERIM'S GREEN FOAM**



**PT. SERIM INDONESIA**

Tel. 021) 547-6453~8

Fax. 021) 546-2739/546-6601

**Medan Factory**

Tel. 061) 6874-3330~1

Fax. 061) 6874-3332

**Singapore Office**

Block 410 Choa Chu kang Ave 3

#08-339 Singapore 680410



## 제64 주년 8.15 광복절 기념 행사 안내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해방의 날임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힘으로 민주국가를 처음으로 세운 날입니다. 매년 한인회는 광복절을 기념하여 모든 교민들이 참여하고 조국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친목과 단결의 경축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복 64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도 한인회에서는 뜻 깊은 잔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 8.15 경축행사 및 체육대회

1. 일시 : 2009.8.15 (토)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2. 장소 :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 대 운동장 및 강당
3. 광복절 기념식 및 체육대회
  - A. 체육대회 : 09:30 ~ 12:00 [운동장]

▷ 체육종목 :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비석치기, 어린이 달리기, 성인 달리기, 엄마와 달리기, 축구  
 ▷ 진행 : 팀으로 운영하오니 입장 시 등록 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팀은 당일 날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B. 점심식사 : 12:00~13:00 [운동장]
- C. 광복절 기념식 : 13:30~14:00 [강 당]
4. 축구결승 및 행운권 추첨 : 14:20 ~ 16:00  
 ※상품이 푸짐합니다. 모두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 ● 골프대회

1. 일시 및 장소
  - A. 일시 : 2009년 8월 15일 (토) 오전 7시 Tee-Off
  - B. 장소 : Halim Lama CC
2. 회비 : Rp. 400,000(Green Fee, 조식, 중식, Caddy Fee, 참가기념품 포함. Tip은 개인 부담)
3. 티켓 판매
  - A. 티켓 : 남 - 120매, 여 - 30매
  - B. 판매 기간 : 2009년 7월 16일~8월 5일 (선착순)
  - C. 판매처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2515)
4. 티켓 구입 시 주의사항 : 성명, 핸디캡,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 구입한 티켓은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5. 참가 자격
  - A. 남 : 핸디캡 28이하, 여 : 핸디캡 30이하

# 이 번 호

## 제1회 한인뉴스 아이디어 공모

### "어글리를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

인니 교민사회는 어느덧 4만명 규모라는 최대 외국인 교민사회로 성장해 직간접적으로 교민사회내에서 또한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밀접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인니사회에 한국인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공공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인이 가담한 소주밀수와 불법유통이 인니 당국에 적발되어 우수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되는 등 한인사회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글리코리안의 모습은 세계 어느곳이든 존재합니다. 어글리코리안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꼭 심성이 어글리해서는 아닌 듯 합니다. 자국문화 우월의식, 타문화 이해 부족이,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해외동포사회와 현지국과의 불협화음이 곧 '어글리 코리안'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는 교민사회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짚더라도 꼭 지나가는 여정이며 그래서 꼭 넘어서야 될 과제로 보여집니다.

이에 한인뉴스는 교민들과 함께 <어글리를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 라는 주제로 해결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교민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1. 주제 : 어글리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
2. 모집기간 : 2009.7.10 ~ 2009.9.10
3. 대상 : 인도네시아 거주 교민
4. 원고분량 : A4 용지 4매 내외
5. 형식 : 자유  
(예:교민사회내에서나 현지인들사이에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어글리코리안의 실례를 들어 분석하고 자랑스런코리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논리적으로 전개)
6. 발표 : 한인뉴스 10월호 지면
7. 시상일자 : 2009. 9월 중
8. 시상내역 : 대상 1인, 우수상 3인, 가작 5인, 참가상.  
(대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최신식 디지털카메라를 상품으로 드리고 한인뉴스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9. 보내실곳 : Haninnews123@gmail.com  
(보내실 때 본인사진과 자기소개서를 첨부 바랍니다)
10. 문의처 : 한인뉴스(Tel : 521-2515)
11. 담당자 : 김영민 편집위원 (HP :0818-916-566)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 한인뉴스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1-2515, 527-2054

창간 1996년 7월 15일

팩스: (021) 526-8444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이메일: haninnews@naver.com

발행인: 승은호

haninnews123@gmail.com

편집인: 조규철

http://www.innekorean.or.id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김남규,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 10 한인사회 소식

- 한인회 이사.운영위원 총회 및 골프대회 개최
- 한인회, 신임 부회장 및 이사 선임
- 2009 세계한인회장대회, 대통령 참석 등 한인회장 위상 실감
- 코트라, 지적재산권 세미나 개최
- 가루다 항공, 7월 자카르타-인천 신규 취항
- **짚막 인터뷰**, 아리프 위보오/가루다인도네시아 총괄이사
- 한국 - 아세안 20년 우정 재 확인
- 고려인삼 맛보세요
- 대한체육회 인니지부 설립추진위원회 결성
- 해외 최초 한국어교원양성 프로그램 인니서 개최
- 소수 밀수와 불법유통 더이상은 안됩니다
- NPPBKC(관세부과대상제품 취급자 번호) 안내
-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인니예선전 개최
- 중부자바한인회, 경찰청장과 교우 자리 마련

26 **묵향과 더불어**-3 마음을 다스려 본성을 기르다

27 **제8차 세계한상대회 등록 안내**

28 **건강칼럼** 숲속의 아이스크림 스리까야

30 **유춘강의 긍정칼럼** 자카르타

32 **인니문화탐방** 할로반둥

36 문화회관 안내

38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

39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바뉴왕이 유행광산에 가 보면

43 **우리짱 니콜라스의 체험영어**-14

47 **법률상식** 환자의 권리와 의무

51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55 **재외동포 장기(모국수학) 교육과정 운영안내**

56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단체협약 주요 쟁점 사안

59 **한국말로 말해요** 제 눈에 안경

60 **김은미의 이달의 추천 도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61 **중소기업 위한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 . 7**

65 **MOVIES**

66 **BOOKS**

68 **경제 리포트**

72 **생활정보 가이드**

76 **7월 공지사항**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2009년도 이사·운영위원 총회 및 골프대회 개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지난 6월 17일 이사·운영위원 총회를 BSD C.C에서 개최하고 2008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논의와 심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승은호 한인회장을 비롯 임원 및 운영위원 40여 회원들이 참여한 총회에는 대사관 안명수 공사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국민의례에 이어 승은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 경제위기에 다행스럽게 인도네시아는 피해가 적은 것 같다. 한인회가 교민들을 위하고 세계 한인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 아이디어를 내고 또 실천도 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재민 사무국장은 지난해 6개월에 걸친 공사와 도서 확충 캠페인 등으로 교민들을 위한 쉼터로 거듭난 한인회 문화회관 개관, 1000여명의 교민들이 참석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송년의 밤 행사 등 각종 경제, 문화, 예술 등에 대한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및 문화체육분과를 비롯한 각 분과위의 활동과 2008년 결산, 2009년 예산에 대한 보고와 심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인회의 대외협력영역확대 및 활동강화를 위한 한인회 대외협력분과 위원회를 설립과 더불어 이호덕 신입부회장(PT. Victor Jaya Raya)이 위원회장으로 위촉되었고 금년도 새롭게 선임된 안상영(PT. Daehwa Leather Lestari), 최창식(인니 하나은행 법인장), 조운행(PT. Wikasa) 신입 이사들의 상견



례가 이어졌다. 또한 한인회와는 별도로 대한체육회 인니지회 설립추진위원회의 회장으로 위촉된 배상경 사장(PT. Jambi Resources)의 설립취지 및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편 김광현 이사(PT. Asoka)는 한인회소속 상주 실무자들에 대한 한인회 회원들의 부족한 관심을 지적하며 균형감을 갖고 대외, 대내적인 환경개선에 동참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총회가 끝나고 제2부 순서로 총회 전 개최된 한인회 이사, 운영위원 골프대회에 대한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이 이어졌다. 골프대회 도중 약간의 비가 내리긴 했지만 골프대회 내내 회원들은 즐거운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최종식 이사는 총 2언더파(총 84타, 핸디 14)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고 메달리스트에 홍기호(총 81타) 이사, 퍼스트러너와 세컨드러너에 이민재 부회장과 조종수 부회장, 롱기스트와 니어리스트에 김문호, 신완수 운영위원이, 김병철 운영위원이 행운상을 차지했다. 시상식과 동시에 이어진 행운권 추첨엔 각 회원들이 찬조한 경품들을 주고 받으며 웃음 꽃을 피웠다.

### 한인회, 신임 부회장 및 이사 선임



이호덕 신임 부회장



안상영 신임 이사



조윤행 신임 이사



최창식 신임 이사

승은호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은 6월 17일 이호덕씨를 신임부회장으로 위촉하고 안상영, 최창식, 조윤행씨를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신임 부회장과 이사들은 앞으로 한인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게 된다. 안상영 신임이사는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개인업무에만 몰두해 한인사회를 돌볼 기회가 없었는데, 다소 늦었지만 적극 참여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신임 부회장 및 이사

부회장	이호덕	PT, Victor Jaya Raya
이사	안상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최창식	인니 하나은행 법인장
	조윤행	PT, Wikasa



재외동포가 참정권을 회복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2009 세계한인회장대회가 26일 충북 제천의 청풍리조트에서 폐막됐다. 사진은 한인 회장들이 화합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화채를 만들고 있는 장면



## 2009 세계한인회장대회 대통령 참석 등 한인회장 위상 실감

2009 세계한인회장대회가 23일 부터 4일 동안 서울과 충북 제천에서 열렸다.

10주년을 맞는 올해 대회는 전 세계 66개국에서 450여 명의 한인회장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으며, 지난 2월 5일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한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여서 각계로부터 예전에 없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첫날 개회식에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참석해 한인회장의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고, 김형오 국회의장,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각계 인사가 행사장을 직접 찾아 오·만찬 등을 하며 한인회장들을 만났다. 한인회장들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실감하는 대회가 된 것이다.

대회장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김승리 회장은 “올해 대회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과 동포청 설립, 이중국적 허용, 국가브랜드 제고 등 폭넓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며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고 평가했다.

한인회장들은 대회에서 국회를 통과한 참정권 관련 개정법이 투표방법과 투표범위 등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다며 재개정을 해야 한다고 여·야

당에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정치권은 현재 총선에서 비례대표만 투표하게 된 것을 지역구 선거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재외공관 투표뿐만 아니라 우편과 인터넷 투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승은호 회장, “한인회 간부 정당 가입시 한인회 퇴출 제안으로 공정선거 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회장들에게 재외선거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아시아한인회연합회 승은호 회장은 “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회 간부들이 정당에 가입하면 곧바로 한인회에서 퇴출하는 새로운 규약을 만들어 정관에 삽입하자”고 제안, 한인회가 공정선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인회장들은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의 연장선상에서 `재외동포청(가칭)`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한인회총연합회 김다현 회장은 “동포청은 외교통상부 소속의 외청이 아닌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동포 관련 예산을 한 군데로 모으고,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국적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달 1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에 취임하는 남문기 씨는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재외국민이



이승민 변호사변리사가 지적재산권에 문제에 관해 강연하고 있다.

## 코트라, 지적재산권 세미나 개최

코트라(KOTRA) 자카르타무역관(관장 김병권)은 25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과 세무제도에 관한 경영지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의 제1세션은 특허청 류승호 사무관과 현지에서 활동하는 이승민 변리사가 연사로 초청됐고, 제2세션에는 세무컨설팅 이지한스의 한태기 대표가 사례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세무상식에 대하여 강연했다.

류 사무관은 “국가간·기업간에 지적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매개로 한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

사업할 때 지적권을 먼저 확보해야 특허 분쟁으로 인한 투자 지연이나 경제활동 위축을 막을 수 있다”며 지적권 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 사무관은 또 특허청의 침해조사와 심판소송비용 지원 등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침해 모니터링 실시 지원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민 변호사·변리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에 상품과 서비스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상표와 상호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상표 분쟁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만큼 상표 출원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신성철 스피드뉴스 대표/연합뉴스 인도네시아 통신원〉

완전한 참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그것이 한민족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인회장들은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거주국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결의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의회 비준을 위해 거주국에서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나 대회가 시작된 지 10년이 됐지만 대회 운영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 칭다오(靑島)한국인회 최영남(57) 회장은 “전 세계에서 정말로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왔다. 그런데 한인을 대표하는 한인회장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프로그램

은 없고, 일방적으로 정책만 홍보하고 설명했다”며 “앞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준비된 정책을 듣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각계각층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열린 2009 세계한인회장대회가 동포청 설립 촉구, 재외동포재단 제주 이전 촉구 등 모두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며 서울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결의문은 700만 재외동포의 당면과제 해결과 거주국과 모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 확립 및 우리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한민족 발전을 위해 동포의 의지를 담았다.



교민들을 환영하고 있는  
아리프 가루다항공 총괄이사

## 가루다 항공, 7월 자카르타-인천 신규 취항



자카르타-인천 노선에 탑승하게 될 에어버스 A330-200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사(이하 가루다항공)는 7월 3일부터 자카르타-인천간 직항노선을 취항하게 된다. 가루다항공은 신규 취항을 기념해 지난 6월 22일 자카르타 리즈칼튼에서 교민 100여명을 초청, 기념 이벤트를 개최했다.

아리프 가루다항공 총괄이사는 가루다항공을 믿고 찾아주신 교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금번 자카르타-인천 신규취항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한-인니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최신식 시설 장비를 탑재하여 새롭게 레노베이션 된 가루다항공을 이용하여 발리, 롬복, 족자 등 인도네시아 구석구석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며 특별한 서비스를 누리보기를 권했다.

또한 가루다항공은 자카르타-인천 승객들이 탑승하게 될 에어버스 A330-200의 최신식 기내설비와 서비스, 특히 교민들의 입맛을 겨냥한 기내식인 한식을 선보였다.

교민대표로 최창식 하나은행장은 6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가루다의 금번 신규 취항에 대해 비즈니스와 고객, 여행이라는 세가지 관점의 의미를 부여하며 가루다항공사가 양국 교류증대와 고객의 니즈 연구를 통한 고객만족서비스로 고객의 행복을 제조해 내는 멋진 항공사가 되길 바랐다.

금번 신규 취항에 대한 일반 교민들은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였다. 한 교민은 “금번 가루다항공사의 취항이 기존 항공사와의 선의 경쟁하는 계기가 되어 교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36석과 이코노미 180석을 마련하고 있는 에어버스 A330은 7월 3일 자카르타발 인천행 신규취항을 시작으로 자카르타에서는 매주 3회(화,금,일요일) 오후 23:25분에 출항하여 익일 오전 8:30분에 인천에 도착하게 된다. 또한 인천발 자카르타행은 매주 3회(월,수,토) 오전 10:35분에 출항하며 오후 15:35분에 자카르타에 도착하게 된다.



# 아리프 위보오

가루다인도네시아 총괄이사

내년이면 Garuda항공 경력 20년이 되는 베테랑 이사 '아리프 위보오'씨. 그가 금번 자카르타-인천 신규취항의 총 책임을 맡았다. 2002년도부터 4년 여간 후쿠오카와 도쿄지점장으로서 일본과 한국, 중국 3국을 총괄 지휘하며 각국의 문화와 역사에도 관심이 많은 그는 특히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한다.



## 인천으로 취항하게 될 항공기가 신기종이라 들었다.

이번 자카르타-인천 신규노선에 에어버스 A330-200을 투입한다. 이 기종은 신항공기로서 연료 효율성이 높아 유럽까지 논스톱으로 운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석 36석과 이코노미석 180석으로 한정되어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인락함을 배가시킬 수 있다. 각 좌석에는 LCD모니터도 부착되어 있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 자카르타-인천 취항 계기는?

첫째 자카르타-인천 노선은 상당히 잠재력이 있다 평가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찾는 외국관광객 중 4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이다. 덴빠사르-인천은 교통편과 승객이 한정적이지만 자카르타 경우 자카르타와 외부 지역으로부터의 많은 수의 승객 잠재력과 카르고 또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약 30석 수준으로 대한항공과의 코드쉐어는 여전히 유효하다.

## 자카르타-인천 직항 항공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가?

7월 중 자카르타발 인천행 출항을 시작으로 주 3회씩 자카르타와 인천에서 출항하게 된다. 취항 전

재인니한국교민들을 모시고 취항기념식과 자카르타-인천 노선 상품에 대한 자세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것이다. 또한 교통부 장관 등이 동석해 하늘에서 자카르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Joy Fly도 계획하고 있다.

노선	항공기명	출발 (현지시각)	도착 (현지시각)	운항일
자카르타 - 인천	GA 898	23:25	08:30 (익일)	화,금,일
인천 - 자카르타	GA 879	10:35	15:35	월,수,토

## 주요 타깃 승객은 누구인가?

자카르타는 점차적으로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비즈니스 손님과 교민들을 중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발리를 제외한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려는 레저승객들과 해외근무 노동자들도 중요 타깃이다. 발리는 이미 기존 노선이 있기도 하지만 떠나도나 빠당, 족자 등등 인니 유수 관광객을 둘러보기엔 자카르타가 가장 요충지다.



가루다항공에서는 한국인들을 위한 한국식 기내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다.

### 비즈니스맨들에게 하루 단위 일정이 중요한데 증편할 계획은 없는가?

올해는 취항에 의미를 두고 있다. 내년 보잉777 신종항공기 확보 이후 매일 취항을 계획해 볼 것이다.

###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항공사의 유럽취항이 제한되고 있다.

가루다항공은 국영항공사이자 유럽연합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국제표준자격인 IOSA를 통과해야 된다. Garuda 항공사는 지난해 인니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사 안전시스템 평가제도인 IOSA(IATA Operational Safety Audit)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지금은 7월말 중으로 인도네시아 항공사 중 Garuda항공에 한해 취항이 재개될 거라 낙관하고 있다.

### 한국인 승객을 위한 특별한 기내식이 준비되어 있나?

친근한 인도네시아 특별 기내식뿐만 아니라 한국인 승객을 위해서도 비빔밥이나 갈비 등을 준비해 놓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인 승무원뿐 아니라 한국인 승무원도 함께 승원해 승객을 친절히 모실 것이다.

### 자카르타-인천 노선 이용 항공료는 어떻게 되나?

7월 3일 취항 기념으로 7월 13일까지 일반석 300달러, 비즈니스 석 약 800달러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 가격을 내놓았다.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시장 상황을 보며 항공료를 조정할 예정이다.

### 교민들 대부분 마일리지를 이용하고 있다. Garuda항공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Garuda항공도 플래티넘, 골드, 실버 마일리지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다.

### Garuda항공이 지니고 있는 우수성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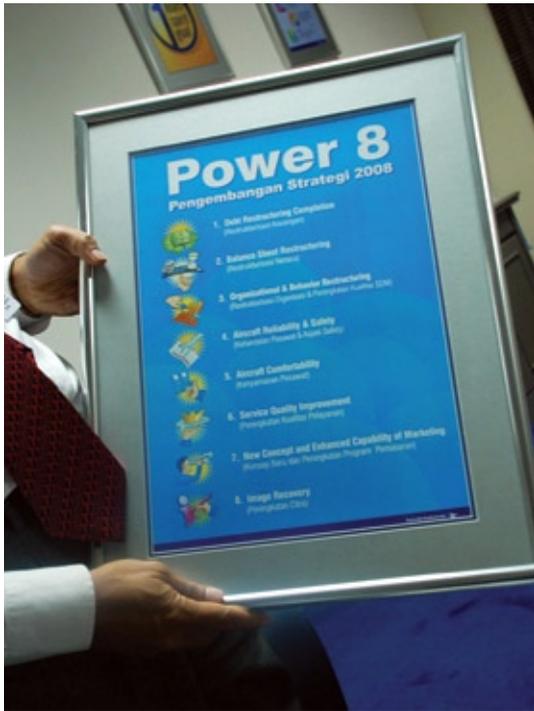
Garuda항공은 바로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친절함과 환대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기내에선 승객들을 위한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과 한국영화와 외화 약 100여 개를 준비해 놓고 있으며 항상 타 항공사의 서비스 질 개선을 눈여겨 보며 보조를 맞출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인이 전세계에서 가장 잘 웃는 민족이라고 한다. 이런 인도네시아인이 가지고 있는 환대를 잃지 간직할 것이다.

### Garuda항공이 직접 인도네시아 투어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다던데?

Garuda항공은 자회사인 에어로위사타(PT.Aerowisata Travel)을 두고 인도네시아 아와 한국, 호주, 일본 등의 에어텔프로그램사인 'Garuda 오리엔트 홀리데이'를 통해 국내 투어패키지를 활성화 하고 있다. 이 투어를 이용하면 한국 내 한국인 뿐만 아니라 인니거주 교민들도 모든 노선을 Garuda항공을 이용해 발리, 족자, 롬복, 바탐 등 주요 관광지 등을 편안하게 투어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지난 10여년간 경영악화로 적자에 시달리던 Garuda항공이 최근 경영쇄신에 이어 부활했다.

지난해 Garuda항공은 자체적으로 대대적



가루다항공은 지난해 부터 전사원적 개혁 운동인 <파워 8>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고질적인 경영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게 됐다.

인 개혁을 해냈다. 부채청산, 조직력&행동 변화, 항공안전성 확보, 서비스질 개선, 신개념 홍보강화 등의 내용으로 하는 '파워 8'이라는 개혁프로그램과 또한 효율성, 충실성, 고객만족, 정직,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전사원의 동참을 이끌어 낸 FLY-HH운동을 꾸준히 실행에 옮기고 극대의 효과를 내면서 지난해 6천700만 달러라는 순이익을 낼 수 있었다.

### 한국 교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가루다항공은 곧 친절과 친근함의 상징이다.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도시 및 관광지를 비즈니스나 여행을 목적으로 할 때 Garuda항공이 인도네시아를 더욱 가깝게 느끼도록 할 것이다.

또한 Garuda항공의 캐터링 시스템, 항공기 유지보수실, 조종사 연습실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으며 교민 행사에 적극적인 후원을 할 계획이다. 교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용을 바란다.

이달의 詩

## 망 고

햇살 쏟아지는 정오  
담장 너머로 오라온  
키다리 망고나무엔  
5월을 닮은 애기 망고가  
주렁 주렁 주렁

반짝 반짝 잎새 사이로  
대롱 대롱 대롱

시절을 좇아 열매 맺는 망고나무  
속살거리는  
햇살 이불 덮고

꿈지락 꿈지락 꿈지락  
두런 두런 두런

### 이 영 속

- 한국문인협회  
- 서울 케이블 TV 주최 '엄마와 떠나는 문학여행'  
시부문 최우수상 수상



## 한국 - 아세안 20년 우정 재 확인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20주년 행사 개최

지난 6월 5일 자카르타 Gedung Balai Kartini에서는 한-아세안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수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문화의 밤’ 행사가 개최되어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전통춤과 문화를 자리한 1천여 관중에게 선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관료, 각국주재외교관, 교민 및 인니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각 국간의 우의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주인니한국대사관(대사 김호영)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를 비롯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을 대표하는 공연단들이 초청되어 각 국가의 전통의 멋을 전해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는가 하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 비보이 팀과 전세계 음악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비틀즈의 곡과 대장금의 주제곡 등을 가야금, 해금 등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국악팀, 현대식으로 바꿔 만든 클래식 악기를 현란한 무대매너에 함께 역동적으로 연주한 밴드 ‘샤인’의 공연이 이어지자 관중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공연 내내 같이 호흡을 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공연단이

소개되자 인니인으로부터 약간의 야유가 새어 나오기도 해 양국간의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1991년 완전대화상대국관계 (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 시켰으며 1997년 12월부터는 ASEAN+ 3(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연례 개최하는 등 국가 정상급을 비롯하여 정부 각 급에서의 활발한 정책 협의와 실질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는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로 총10개국이다





## 고려인삼 맛보세요

한국인삼 대표적 산지인 금산군이 현지인들에게 다양한 상품의 고품질 인삼을 선보였다.

금산군 주최, 한국대사관 후원으로 지난 6월 27일 자카르타 몰리아호텔에서는 세계적한국브랜드인 고려인삼을 적극 홍보한 “2009 고려인삼 축제”가 개최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열리게 된 금번 인삼축제엔 고려인삼세미나와 기자회견, 전시 및 비즈니스 상담이 동시에 열려 고려인삼을 현지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장내에는 수삼, 백삼, 홍삼, 액기스류, 분말캡슐, 인삼차류 등 종류도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되어 현지인들의 이목을 끌어당겼다. 현지인들은 인삼의 특성과 효능에 대해 전시안내자에게 꼼꼼히 질문을 던졌다. 한국인의 입맛과 다른 인도네시아인에게 인삼의 맛은 어떻게 느껴질까? 초청을 받아 참가하게 된 보고르농과대학의 한 학생인은 “조금 쓰긴 하지만 현지 음식에서 느끼는 쓴맛과 큰 차이는 없다”면서 친근감을 표시했다.

또한 주최측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삼계

전시안내자가 홍삼액기스 피부 건강과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삼계죽을 시음하고 있는 현지인

죽과 인삼튀김, 인삼주 등을 내놓아 묘약으로서의 인삼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실생활 음식에도 충분히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박동천 금산군수는 “한국엔 150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명물 인삼이 있고 금산군이 바로 그 유통의 중심지다. 고려인삼의 신비한 효약을 인니에 알려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하길 바란다”며 인삼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고려인삼이 미국의 서양삼, 중국의 전칠삼 등과 종이 다를 뿐 아니라 그 효능에 있어서도 세계인의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한국이 인삼생육에 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인삼이 많이 재배되는 경작지의 위도는 북위 36°~38°로서 타국삼의 생육기간(연간 120~130일)보다 긴 180일 동안 인삼의 발육을 충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려인삼은 내부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하며, 고유의 향 또한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다.

한편 자카르타 끌라빠가당 지역에 위치한 소고쇼핑몰에서는 26일부터 사흘간 고려인삼 천시와 판촉전이 열려 호응을 받았다.

## 대한체육회 인니 지부 설립추진위원회 결성



지난 6월 12일 저녁시간 시내 모 식당에서 몇몇 한인회 간부와 체육인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 모임의 목적은 지난 6월 9일자 한인회 회장단 회동에서 발의하여 권고된 대한체육회 인도네시아 지부 결성에 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8명의 참석자들은 즉석에서 '재인니 대한체육회(Korean Olympic Committee in Indonesia)'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회장에 배상경, 부회장에 김광현, 사무처장에 김문환, 위원에 신기엽, 현정규, 이종남, 오일남, 조실형씨를 선출하였다.

상기 추진위원회는 향후 신규정에 의한 정관제정, 조직편성 및 임원선임, 종목별 가맹경기단체 및 주(Propinsi) 단위의 지회결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창립총회, 주재공관장 추천절차를 거쳐 대한체육회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 출범하게 된다. 현재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해외지부는 총 17개국에 이른다. 한편 상기 추진위원회는 코리아센타 내 문화회관 1층에 있는 작은 공간을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1920년에 창설된 대한체육회는 2009년 2월 19일 제 37대 박용성 회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최우선순위로 심혈을 기울인 한국올림픽위원회와의 통합정관작업이 결실을 보아 지난 6월 24일 총회를 통과하여 명실상부한 양대 기구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통합 기구의 명칭으로는 '대한체육회'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영문명칭은 'Korean Olympic Committee'로 결정되었다.

### 〈재인니 대한체육회〉 설립추진위원회 주소

Korean Association Building Lantai 1,  
Jl.Gatot Subroto Kav.58, Jakarta, Indonesia  
Tel : 021) 529-20111  
Fax : 021) 529-20222  
사무처 CP : 0811-901983

아울러 상기 위원회는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유학생)을 구인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대상자는 전산업무 능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7월 31일 까지 상기 주소로 Fax 송부바란다고 함.

### 아르바이트 인원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1명
- 주요업무: 전산업무(Website 관리 등)
- 근무시간: 일일 4시간, 주3일(평일), 근무시간대는 근무자 선택
- 보수: 한인회 관례



## 해외 최초 한국어교원양성 프로그램 인니서 개최

인도네시아한글학교협의회(이하 한글학교협, 회장 안영란)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서영훈)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교원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행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에 대한 교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재단과 한글학교협은 국립국어원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 한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원양성프로그램의 인도네시아 시행 승인을 받아 처음 선보이게 된 것.

개소식은 지난 6월 22일 약 6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카르타 연합교회에서 열렸다.

한글학교협 안영란 회장은 선교사, 교사, 일반인들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참여한 만큼 꼭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전했고, 수강생 중 남성들이 있어 놀랐다는 재단의 이희양 이사는 “국립국어원의 승인을 얻기까지 많이 힘들었다.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번 프로그램의 성공여부가 향후 프로그램 지

속과 직결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대학교(UI)에 교환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영덕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어 인기가 가장 높은 이 시기, 열심히 배워 가르치는 보람을 꼭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수강생들은 프로그램 참가이유와 각자 소개를 나누며 한명도 낙오 없이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할 수 있도록 힘을 내자며 서로를 격려했다.

수강생들은 개소 이후 7월 13일 오프라인 강의 이전까지 한국어 관련 과목 40시간을 온라인상으로 공부할 하게 되고 오프라인 강의(장소: Hotel Atlet Senayan Room)부터는 한국에서 직접 나온 교수들로부터 나머지 80시간을 직접 수강해 총 120시간을 수료하게 된다.

수료하게 되는 수강생들은 하반기 국립국어원이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정식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 소수 밀수와 불법유통 더이상은 안됩니다

지난 6월 4일 판중쁘리옥항을 통해 13만병에 달하는 소주를 밀반입하려는 한국인 1명과 소주불법유통에 가담한 또 1명이 인니세관에 의해 적발되자 인도네시아 10여 개 언론은 이번 사건을 크게 보도하고 나섰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이번 적발은 한국인 큰 밀수 조직 낚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템포지는 “1달여 기간 주시해 왔다”는 안와르 관세청장의 말을 인용해 밀수에 대한 정보를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준비해 왔음을 시사했다. 이에 관세청은 밀수 소주 판매여부와 더불어 주류판매허가권 소유여부에 대한 한국식당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대사관은 지난 8일과 대사관 회의실에서는 오송 공사, 이득수 관세관, 수입업자, 10여명의 한식당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소주 밀수 근절 및 건전한 소주유통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밀수사건으로 인해 한인사회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밀수와 밀수 소주 판매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세관에서의 소주 수입의 애로점과 인니 정부의 주류판매허가 절차의 복잡성이 밀수를 부추기는 부분이라며 세관과 인니 정부의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대사관측에 인니당국의 합리적이지 못한 무분별한 한식당 단속을 자제하도록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사관은 지난 17일 관세청 직원과 교민기업인 130여명이

- 1. 정식 수입 소주에는 1.관세수입인지, 2.관세청바코드,
- 3.인도네시아공식수입원 라벨이 붙어 있으며 4. Imported와 5.유통회사가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석한 가운데 소주 수입 및 유통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세청에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주 수입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과 한국 업소에 대한 주류판매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직접 건의했다. 특히 한 한식당 대표는 정식수입소주 판매가격은 식당과 손님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소주 수입가격현실화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사관과 유통업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랐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김호영 대사도 직접 관세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일단 소주문제에 관



한 일정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대사는 6월 23일 안와르 관세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건전한 소주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세미나가 인니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최되었고 교민사회 자체적으로도 법규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1. 한인업소들의 NPPBKC(관세부과대상제품 취급자번호) 발급 신청시 30일 이내 발급 및 NPPBKC 신청 업소에 대해 단속유예, 2. 수입 소주 과세가격 재조정 등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안와르 청장은 한인업소명단을 제공해 주면 지방세관에서 동 업소들에 관련사항 홍보 등 행정지원을 하고 NPPBKC 신청 업체에 대해서도 임시번호를 발급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청장은 수입소주에 대한 과세가격 책정 시 세관

당국과 수입업체간 상호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사관과 관세청이 과세가격 재조정을 논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대사관은 인니 개정 관세법에 의거, 한인식당 포함 모든 식당들은 소주 판매시 인니 세관으로부터 NPPBKC를 취득해야 하고 NPPBKC 없이 소주를 판매하는 것은 세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조속한 취득을 당부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허가상의 문제로 인해 NPPBKC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한인업소들에 대해선 NPPBKC 취득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불가함을 밝혔다.

## NPPBKC(관세부과대상제품 취급자 번호) 안내

### 1. NPPBKC

- 관세부과대상제품 취급자는 인니세관으로부터 관리번호를 취득해야 함.
- 대상은 제조자, 창고보관자, 수입자, 유통업자, 소매상

### 2. 제품별 NPPBKC 취득 의무자

- 담배 : 제조자, 수입자
  - 에틸알콜 함유 음료(소주) : 제조자, 수입자, 유통자\*, 소매상
  - 에틸알콜 : 제조자, 창고보관자, 수입자\*, 소매상
- \* 표시는 2007년 부로 신규 포함

### 3. 주류수입업자 사업장 조사 신청

- 신청시 수입업자 구비서류
    - SIUP-MB(주류취급 사업자등록증)
    - IUI/TDI
    - 사업장 약도
    - IMB
    - HO(자방정부 발행의 사업장 허가)
  - 지방세관 사무소의 신청 처리 절차
    - 사전 인터뷰 실시(BAW)
    - 사업장 실사
- \* 사업장 실사 결과는 NPPBKC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임

### 4. 주류 수입업자의 사업장

- 직접적으로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건물, 마당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
  - 공공장소, 학교, 병원과 100m의 거리를 유지할 것
  - 특별한 상업지역이 아닐 경우 공공도로에 인접할 것
  - 택지, 건물, 공간, 장소를 보유할 것
  - 2m 이상의 담장을 보유할 것
-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

### 5. 허가절차

- 지방 세관은 재무부장관 명의로 허가 여부를 30일 내에 통보
- 허가의 경우 NPPBKC 발급(1회 허가로 계속 효력 유지)
- 불허의 경우 이유를 포함한 불허통지서 발송

### 6. NPPBKC의 효력정지

- NPPBKC 보유자의 세관분야 형법위반
  - 사건 보고서, 실사 시 인터뷰, 조사 보고서, 증인/전문가의 증언, 증거물(위 중 2개 해당시 허가 정지)
- 발급 시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때
- 사업상 과도한 빛이 발생했을 때

### 7. NPPBKC의 취소

- 취소 요청시
- 1년 동안 사업활동이 없을 시(개보수, 자연재해 제외)
- 관세법 위반 시
- 더 이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닐 시
- NPPBKC 보유자가 파산 시
- NPPBKC 보유자가 사망 시
- 관세법 위반으로 법원의 판결 시
- 재무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에게 사업을 넘기거나 위임하거나 동업했을 시

### 8. 주의사항

- 모든 주류의 배달이나 운반 시에는 납세원료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세관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문의사항은 대사관 이득수 관세관(021-520-1915, leeds@customs.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시안내자가 홍삼엑기스 피부 건강과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인니예선전 개최

우리말과 우리글을 바로 쓰고 지구촌에 보급을 위한 세계한국어웅변대회 인도네시아지역 예선이 지난 6월 5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KKS)에서 개최되었고 JKKS 학생,교사들과 한인회, 대사관, 연사의 가족들을 포함 약 700여명이 대회를 지켜봤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웅변대회는 국립국어원과 사단법인 한국웅변인협회 주최로 한글문화 보급, 평화통일, 청소년 국제교류 역량 개발, 전세계에 한국 홍보, 한국문화와 언어 소개 등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로 발표하는 대회로서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참가하는 대회이다.

총 30여명의 연사들이 참가한 이번 웅변대회에는 JKKS를 포함한 간디스쿨, 싱가포르국제학교등에서 학업하고 있는 한국학생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대학교, UNAS 대학교, 가자마다 대학교 등 인니인들이 다양하고 대등한 비율로 참여해 우리말에 대한 인니인의 상당한 관심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의 웅변대회를 쉽사리 접해볼 수 없었던 인도네시아 참가자들은 대회 분위기에 생

소해 하면서도 이런 분위기를 한국 문화의 특수성의 한 부분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기도 했다.

모든 연사들의 웅변이 끝나고 신지환(JKKS 2학년) 학생과 NURLIA MAGITHA(UNAS대학교) 학생이 대상을 받아 향후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본선대회에 인도네시아지역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연사들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웅변시간으로 인해 자리한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매끄럽지 못한 대회 운영의 미숙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행사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주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웅변대회에 참석한 UNAS 학생과교수들





## 중부자바 한인기업들 경찰청장외 간부들과의 교류 자리 마련

중부자바한인회 및 기업대표들 30여명은 지난 6월 20일 중부자바 경찰청장 외 참모진 등 약 40여명과 저녁모임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모임은 경찰청 간부들이 대통령선거 준비와 관련해 중부자바교민업체 순회 중 PT. SAMWON BUSANA INDONESIA(대표 이재목)를 방문하여 중부자바 한인회 및 기업대표들과의 만남을 요청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한인기업 대표들은 새로 오픈한 한인식당 대장금(대표 손 영진)에 경찰청장 및 간부들을 초청하고 그 간 한인들의 안전 및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준데 대한 감사사를 전했다. 또한 선거준비로 바쁜 일정이지만 금일 모임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KAPODA(MR. ALEX BAMBANG)는 선거로 지역 치안 등 힘든 시기에 자리를 마련해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한인 및 기업체와의 관계증진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저녁 식사 중 한인업체대표들과 경찰청 간부들은 각각 소개를 나누며 양자간 교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반둥한인회는 뜻 깊은 금번 모임을 위해 찬조 및 참석해주신 회원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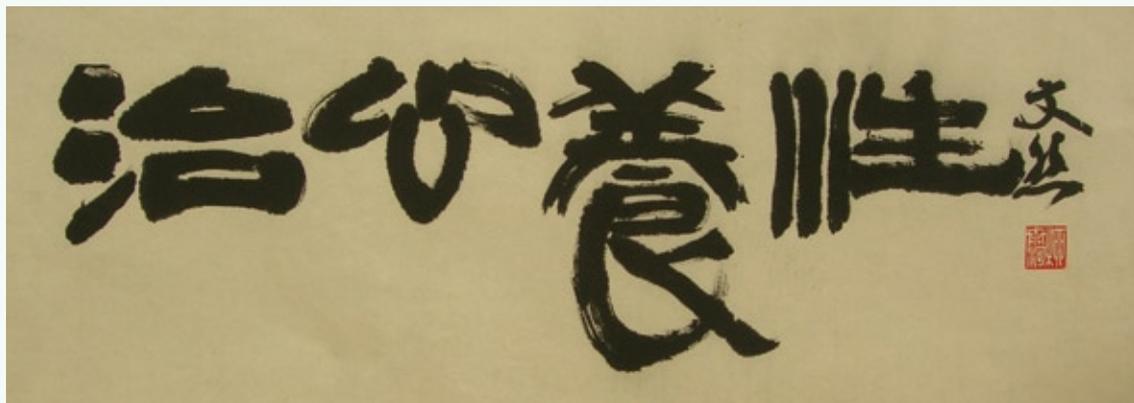
## 마음을 다스려 본성을 기르다

유 태 하

“어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라”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자주했던 말이다. 어찌면 그것은 틀에 박힌 듯한 일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한데, 18여 년 전 위치, 문화 등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달랑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어’ 책 한 권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배경이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초기에는 크고 작은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두 아이는 서울에 가서 홀로서기를 하고 있고 고3인 막내딸아이는 대학갈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 받고 잘 살았는지 크게 감사할 일이다.

“자기 발전을 위해 하루 단 몇 분이라도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내 첫 직장 상사로부터 시작되었다. “Mr유는 자기 발전을 위해 하루에 몇 분을 소모하나요?” 하는 질문이 당시 허둥대며 출근하고 회식이니 접대니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나에게 큰 자극이었던 것이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자애(自愛), 또는 가족애(家族愛)라고 강변했던 젊은 시절의 시간과 금전에 대한 많은 소모가 반 자애요 가족애였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많다.



치심양성(治心養性), 마음을 다스려 본성을 기르다/ 문연 류태하 2009년 작

참 아름답게도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서 누가 일러주는 진리의 말 한 마디에 번뜩 깨우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경험을 통해 깨우치기도 한다. 나 또한 진리와 지혜를 본받기 즐겨하는 바여서 주위의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노력하는 사람을 본받아 실천하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향상된 결과들을 맛보기도 하는데, 여간 쓸쓸한 재미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지면에 실는 서예 작품도 그렇다.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고 마침 전문가를 만나 따라서 하다 보니 몇 차례 전시회도 하게 되고 아이들을 위해 한두 점 휘호를 하기도 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매일 즐기는 수영, 무료함도 달래고 상당한 힘도 길러준 차 안의 아령 운동,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기타 치며 복음성가 부르기 등이 모두가 남이 하는 것을 부러워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도 따라 실행한 덕이다.

나는 현재의 부족한 점을 부끄러워하기 보다는 이웃의 장점을 보고 배우기를 좋아한다. 특히 좋다고 권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한다.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으려는 노력은 물론이다. 그런 덕분에 60을 바라보는 초로의 나이지만 퇴보되는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추고 새롭게 배워가며 조금씩이지만 발전하는 즐거움을 맛보며 즐겁게 생활한다. 그간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좋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The 8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제8차 세계한상대회**

한상(韓商)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

Hansang, the Future Hope of Korea !



제8차 세계한상대회가 10월 27일 부터 사흘간 인천에서 “한상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됩니다. 교민 기업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대회개요**

- 가. 기 간: 2009년 10월 27일(화)~10월 29일(목)
- 나. 장 소: 인천 송도컨벤시아(Songdo Convensia)
- 다. 규 모: 내·외 동포 약 3,500 명
- 라. 주 최: 재외동포 경제단체
- 마. 주 관: 재외동포재단, 인천광역시, 매일경제신문·mbn
- 바. 슬로건: “한상(韓商)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 등록안내**

- 온라인: 대회등록사이트(www.hansang.net)를 통한 등록 신청
- 오프라인: 온라인 등록이 불가한 경우 Fax 또는 이메일로 한상대회본부사무국에 신청
- 사전등록 기간: 2009. 5월 ~ 7월 31일

**□ 등록비 및 등록비 포함내역**

국외 참가자

기간	사전등록	현장등록
등록기간	2009.7.31까지	2009.10.27(대회당일)
등록비	USD 350	USD 450
등록비 포함내역	① 숙박제공 : 2009.10. 27 ~ 29 (3박, 2인1실) 1인1실 사용 및 동반가족 1인당 USD 350 추가부담 ② 프로그램 참가 : 비즈니스 프로그램, 세미나, 문화행사 등 전체 프로그램 참가 ③ 식사제공 : 총8회 - 행사장 : 10. 27 만찬, 10. 28 ~ 29 오·만찬 - 숙소 : 10. 28 ~ 30 조식 ④ Convention Kit, 한상기업디렉토리, 각종 기념품 제공 ⑤ 숙소-행사장간 무료 교통편 제공	

**□ 등록비 지불 방법**

등록비 납부 계좌

구분	국외 참가자	국내 참가자
은행명	Hana Bank Sechoo-Nam Branch	하나은행
계좌번호	224-910002-55132	224-910001-89805
예금주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Swift code	HNBKRSSE	
은행주소	1354-5, Seochoo-dong, Seochoo-gu, Seoul, Korea	

**□ 등록 취소 및 변경**

등록이 완료된 후 등록에 관한 취소 및 변경 사항은 서신으로 작성하시어 팩스, 우편, 이메일을 통하여 2009년 9월 30일 까지 한상대회 본부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람.

2009. 9. 30까지 100% 환불 / 2009. 10. 1부터 환불 불가

\*환불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대회가 끝난 후 은행 송금 방식으로 진행.

\*환불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환불자 부담.

**□ 등록 확인**

등록신청서 접수와 등록비 결제가 확인되면 사무국에서 등록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등록확인증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 세계한상대회 본부사무국**

전화: 82-2-3415-0150

팩스: 82-2-3415-0118

이메일: hansang@okf.or.kr

담당: 재외동포재단 한상팀 오은아 대리



# 숲속의 아이스크림 스리까야

울퉁불퉁 수류탄같이 생긴 이것을 처음 봤을 때는 참으로 요상스러웠습니다. 사불까 말까 몇 번을 고민하다 하나 사고서도 어떻게 먹어야 하나 또 한 번 난감했던 열대과일입니다.

이 과일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렇게 못생긴 과일도 있으려나? 다른 열대과일에 비해 가격도 그리 싸지 않습니다. 하나 하나씩 귀중하게 신주단지 모시듯 과일 싸는 스펀지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직원들에게 이 과일을 보여줬더니 다들 이 과일을 아는 듯, ‘아~~스리까야!’ 하고 웃지만 먹어본 직원 보다 안 먹어본 직원이 많을 정도로 아직까지 대중적이지는 못한 과일인 것 같습니다. 반 잘라서 손가락으로 아이스크림 떠 먹듯 먹으면 되는데 신선하고 달콤하고 수분이 많아서 디저트로 너무 좋은 과일, 스리까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리까야, 다른 이름으로는 부아 노나(Srikaya, Buah nona)라 불립니다. 스리까야는 목련목(Magnoliales) 포포나무과(Annoaceae)에 속하며, 학명은 Anona Reticulata입니다.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방이 원산지이며, 현재는 동남아시아, 인도, 호주, 아프리카로 널리 전파되어 재배되고 있으며, 고도가 낮고, 따뜻하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각국에서 부르는 이름은 석가(Sakya: 석가의 머리 윗부분을 닮아서), 너이나(태국: 수류탄의 의미), 스리카야

(인도네시아), 부아 노나, 스리카야(말레이시아), 아티스 또는 타갈로그(필리핀), Sita Fruit (인도: 원숭이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등이 있으며, 영어로는 부드럽고 달다 해서 Custard apple 혹은 Bull's heart로 불리며 Sugar Apple, Sweet sop, Cherimoya, Atemoya는 스리카야를 교배하여 약간 변종된 다른 종류입니다.

모양은 말 그대로 수류탄 같이 생겼습니다. 좌우대칭의 원형에서 심장모양, 타원형, 전혀 불규칙한 모양까지 다양하며 크기는 7~12cm가량입니다.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실삭하고 생김새가 비슷하며 실삭 보다는 크기가 작아 주먹 크기만하며 처음 나무에서 따면 초록색이지만 따서 나중에 익혀 먹는 후숙 과일입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굉장히 말랑말랑 해지면서 굳이 칼로 자르지 않아도 손으로 쪼개어 집니다. 반으로 가르면 가운데에 심이 있고 그 옆으로 꽃잎처럼 과육이 하얀 속살을 내보이며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씩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된 조각을 뜯어내면 검은 강낭콩 같은 씨와 함께 과육이 떨어져 나옵니다. 한입에 넣어 과육은 오물오물 빨아 먹고 씨는 버리며, 씹지 않아도 될 만큼 입에 넣으면 녹아 내리는 아이스크림 같은 과육입니다. 특히 이름 중에 ‘custard’라는 이름은 스펀지로 떠먹을 수 있는 만큼 부드러워 이 과일의 속살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맛은 굉장히 달달 합니다. 당도가 22 브릭스 이상도 달한다고 하며, 단 맛에 약간 우유를 타 놓은 듯한 맛이 혀로 느껴지는 맛입니다. 고소하고 달콤하지만 좀 오래 먹다 보면 약간의 느끼함도 느껴지는 게 이 과일만의 접해보지 못한 특유한 맛입니다. 예전 현지인들은 우유를 구하기 힘들 때 갈아서 우유대용으로 먹기도 하었다고 하니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기미는 한량(寒凉)하며 감산(甘酸)하고 무독無毒(씨는 유독有毒)하며, 귀경으로는 족양명위경, 족태음비경, 수소음심경, 수양명대장경에 들어갑니다. 한성으로 인해 심장의 열을 꺼주는 효능이 있으며, 산미로 인하여 수렴하며, 완중(緩中)하는 효능이 있으며 살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청열, 청심, 이기, 거담, 행수, 설기하는 효능이 있어 각종 심장질환, 소화기관의 각종 체증, 소화불량을 치료하며, 수양명대장경으로 귀경하는 성질이 있어 설사, 이질을 치료하는데 좋은 효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g당 영양소는, 탄수화물 22.6g(식이섬유 3.8g), 지방 0.6g, 단백질 1.82g, 수분 68.3~80.9g, 티아민(Vit.B1) 0.097mg 7%, 리보플라빈(Vit.B2) 0.131mg 9%, 비타민 C 29.7mg 50%, 칼슘 22.3mg 2%, 철분 0.78mg 6%, 인 23.4mg 3% (%는 미국성인 하루 권장량에 대한 비율)입니다.

스리카야는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에너지 그리고 저지방 등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 소화기관에 좋습니다. 또한 스리카

야의 당분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내며 가공된 설탕과 같은 과잉의 인슐린분비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지방 식품으로 좋습니다. 뛰어난 비타민C와 좋은 식이섬유의 공급원인 동시에 비타민B6, 마그네슘과 칼륨, 그리고 약간의 비타민B6와 복합당의 공급원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주요 역할을 하며 심장병 예방에 가장 중요하며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섭취는 매우 건강유지에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또한 약한 신경 안정 작용을 합니다.

스리카야는 나무 자체도 굉장히 유효한 성분들이 많아 전세계적으로 약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털익은 스리카야 과육에는 탄닌(Tanin)성분이 있어 설사, 이질에 좋으며, 잎을 다려먹으면 궤양, 농양, 종기에 좋으며, 특히 씨에는 살충의 효과와 낙태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는 먹지 않습니다. 특히 씨를 갈아 분말로 만들어 머리에 도포하면 머릿니를 죽인다고 하며, 뿌리를 다려 마시면 이뇨작용, 천식에 좋다고 하니 버릴게 없는 식물인거 같습니다.

스리카야는 손으로 눌러 보았을 때 쑥 들어갈 정도로 물렁물렁 할 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확 후 일주일 정도 두고 익히거나 겉 표면이 초록색에서 거무스름한 반점을 띄며 물렁물렁해질 때 먹어야 단맛이 절정에 다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익어 물렁해진 과일이나, 껍질에 가루가 있는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리카야는 음료수, 잼 또는 사베트를 만드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의 귀족으로 알려져 있는 스리카야는 미국의 소설가이며 허클베리핀의 작가인 마크 투웨인이 이를 가리켜 사람들에게 알려진 과일 중 가장 맛이 좋다고 했으며, 칠레에서는 National Fruit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제주도에서 스리카야의 아들뻘인 아테모야라는 종을 재배한다고 보았는데 그 가격이 무려 12개에 45만원으로 백화점에서 설날 선물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2008년 기사). 아직 눈여겨보지 않는 한 이런 과일이 있는지조차 힘들지만, 한번 그 맛을 맛본 사람이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잊어버릴 수 없는 과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솔한의원 원장 김효영

vitavic@naver.com / 021-7278-7410



# 자카르타, 낮선 곳에서의 한 때, 충분히 빛나고 있다.

유춘강 소설가, 카피라이터

자카르타에 온지도 벌써 6개월에 접어들고 어느 정도 이곳의 삶과 일상에 익숙해졌다. 새 옷을 입은 것 같았던 기분이 감정적으로 구김이 생기고 어느 정도 여유 찻수가 생겨서 편안해졌다고나 할까.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이 있다.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다.

나의 꽃다발,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해서 처음 왔을 때의 혼란스러움 같은 건 사라지고 생활을 즐길 줄 알게 됐다. 사실 꽃다발이라고는 하지만 그 꽃다발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갑자기 웬수뎡이도 됐다. 진상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어느 개그맨의 말처럼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야기다. 내가 종종 하는 말이 '셋 키워봤어? 안 키워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다.

아직 영어라는 산이 버티고는 있으나 그것도 오르다 보면 끝이 보이는 산일뿐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한 쪽 눈 질끈 감기로 했다.

실연과 영어의 공동점이 무엇이나 하면 바로 '시간이 약이다' 이다. 실연에 시간이 약이듯이 영어 역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니 그냥 접기로 마음먹고 긍정의 스위치를 올려놓으니 애들도 나도 좋다.

딸과 이야기를 했다. 네 안의 분노를 폭발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너를 빛나게 하는 에너지로 발전시키라고. 너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일에 몰입을 해보라고 했더니 딸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나를 빛나게 할 생각이야. 알고 있다고.”

모처럼 만에 들어보는 다소곳한 목소리에 나는 안심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고마웠다. '이 아이가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구나' 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엄마, 난 노마드족이 될 거야.”

“너, 그거 알아?”

“신문에서 봐서 조금은.....”

“그럼 영어는 당근 필순데?”

순간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입을 꼬집고 싶었다. 대화에 영어의 '영'자도 집어넣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건만 마음이 스프집시 만큼 작고 조금한 엄마인지라 깜빡하고 실수를 했다. 그러나 다행히 딸은 뽀족하게 굴지 않고 넘겨줬다.

‘노마드 족’이란 게 있기는 있다. 그들은 쉽게 말하자면 현대판 집시이다. 요즘은 나 역시 딸들이 죄다 노마드 족이 되어도 좋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이들에게 불박이로 만 살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 과거와는 달리 여자가 살기에 편한 세상이

되었기에 그들이 노마드 족이 되어서 떠돈다고 해도 대 찬성이다. 예전엔 노마드 족을 떠돌이라고 했을지 모르 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들은 진정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떠돌이 이다. 그들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기도 한다.

이참에 어쩌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온 자 카르타에서의 삶이 딸들에게 노마드 족으로 살아갈 동 기부여를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국경이 없이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옮겨 다니는, 머물지 않는 정신을 가진 노마드 족으로서의 삶이 나의 세대는 관습이나 의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불가능 했지만 나는 내 딸들에게 그런 몫쓸 연결고리를 끊고 나 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줄 생각이다.

아마도 자카르타에서 나의 아이들은 충분히 성장할 것이다. 감히 꿈꾸어 본다. 그 아이들이 누리고 다닐 도 시와 나라들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지. 뉴욕이든, 런던이든 아니면 유럽의 어느 도시든 그것도 아니면 동남 아의 어느 도시든 간에 노마드 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는 곳이 그들의 고향이고 집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유목민이기보다는 늘 안정을 추 구하는 정착민에 가까웠다. 비록 정신은 디지털 유목민 의 정서를 추구했을지는 몰라도 현실은 그랬다.

내가 가본 도시라곤 호주와 지금의 자카르타이다. 어느 도시마다 그곳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소 리 같은 것이 있다. 일본하면 분분히 날리는 벚꽃이 있겠고, 뉴욕하면 베이글과 커피가 있다(뉴욕은 가보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이 그러하다) 호주 는 빅토리아 공원의 한가로운 아침 산책이 생각난다. 이태리는 걸어 다니는 남자들 이 죄다 꽃미남일 것 같은 망상(?)이

떠오른다.

그런 나에게 자카르타는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 는 중일까? 비록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자카르타의 이 미지는 두 가지의 소리로 기억된다.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새벽부터 백주 대낮까지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웅 열거리는 것 같은 남자의 목소리와 오토바이 소리 이다. 둘 다 처음엔 잠을 깨우는 불편한 소음으로 다가왔다.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낮선 남자의 주문 같은 소리 를 듣고 깨면 어김없이 네 시 반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 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는 오토바이들의 소리이다. 오토바이는 어쩌나 많은 지 단 하루도 교통체증을 겪지 않 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불편했던 소리가 이젠 다르게 들린다. 근 처 사원에서 들리는 낮선 남자의 목소리는 새벽에 위안 이 되어주기도 하고 선잠에 깨서도 그 소리를 들으며 다 시 꿈을 꾸다. 그러다보면 일정한 음률이 실린 그 목소 리는 어느새 ‘괜찮아,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모두 잘 하고 있어’ 로 들린다.

오토바이 소리 역시 마찬가지다. 가끔은 어쩌면 그것 이 자카르타의 심장 소리 일지도 모른 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카 르타인들의 심장소리. 뭐 좀 거창한 것 같지만 나는 이 젠 이 소리들을 즐길 줄 알게 됐다.

노마드 족의 조건은 어쩌면 별게 아닐 지도 모른다. 그 어느 곳에 있든 자신의 삶을 긍정으로 변화시키기 위 해 노력하고, 또 영역을 옮겨 다니더라도 낮설어 하지 않고 일체가 되려고 하는 자세, 뭐 그런 게 아닐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나 역시 초보 노마드 족으로서의 삶을 이 곳 자카르타에서 시작한건지도 모른다. 물론 한시적인 노마드족 이긴 하지만 말이다. 더불어 우린 반짝반짝 빛 나고 있다.





고딕 양식의 베드로 성당에서

# 행 퍼 반 동

글: 이종순

삶에 싫증이 나면 나는 여행을 꿈꾼다. 인도네시아는 그 진가에 비해 우리나라에 덜 알려진 곳 같다. 친구 덕택에 자카르타를 방문하는 복을 누린다. 사공경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한인회 문화 탐방단 일행 13명은 1박 2일의 여정으로 반동으로 떠난다. 처음 자카르타에 왔을 때 가장 놀란 것은 거리의 빌딩과 주택들의 아름다움이었다. 건물의 규모도 규모이

거니와 하나하나의 특색 있는 자태는 그대로가 예술이다. 반동은 자카르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운 건물이 즐비하다.

우리들이 묵은 Sangria 호텔은 자연과 인공의 완벽한 조화물이다. 지형을 살려 생긴 대로 객실을 짓고 계곡 너머로 페츄니아를 닮은 노란색 꽃들은 절벽 아래로 폭포를 이룬다. 꿈인 듯 생시인 듯 황홀경에



작업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딕 양식의 성베드로 성당에 들어섰을 때는 종소리와 함께 중세의 수도사가 나타날 것 같다. 성당 앞에 반둥과 수원이 자매결연을 맺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화성 성문을 여기에서 만나다니.

그 외에도 우리들은 많은 곳을 탐방하였다. 브라가 거리의 화가들은 그들이 바로 고흐이자 램브란트이다. 우리나라 대학보다 더 세계화된 반둥 공대에서 만난 학생들은 이제 독립 투사들의 후배로서의 자부심을 뛰어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더 절실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빠지고 만다. 새벽 맑은 공기 속에서 산 안개가 흐르는 숲속의 이곳은 바로 우정이 있는 이상향이 된다. 아름다운 새소리를 따라 이름 모를 갖가지 색깔의 꽃에 도취되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스파와 아로마는 다음으로 미룬 채. 한국 최고의 시인 김삿갓이 내금강을 찾았을 때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글로 표현하지 못한 심정을 헤아려 본다. 세 번 씩이나 자카르타에 초대된 친구나 성화에 못이기는 척 길을 나선 나는 똑같다. 이곳 반둥에서 우리들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웃는다.

반둥에는 1920~1930년 사이에 400여 채의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졌다. 건축 실험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작품을 뽐낼 수 있던 이곳은 복 받은 도시임에 틀림없다. 아르데코 스타일로 곡선 처리된 우아한 건물들. 아시아 아프리카 박물관이 있는 Gedung Merdeka, 아시아 아프리카회의 때 각국 대표단이 묵었다는 Grand Preanger 호텔, 유럽 건축 스타일을 열대 지방의 환경과 고대 장식과 잘 조화 시킨 Gedung PLN, 로마 고

반둥 공대 예술학부 앞에서





라뚜 분화구에서 우빠스 분화구 가는 길

는 함부로 글로 표현해서는 안될 것 같은 조각공원과 양끝롱 연주에 관한 감상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또 서부 자바에서 가장 큰 분화구 Kawah Ratu를 보고 뒤쪽에 있는 Kawah Upas로 갔다. 회원들 모두 처음 가보는 분화구라고 했다. 까와 라뚜가 장엄하고 남성적이라면 까와 우빠스는 수줍은 듯 여성적인 분화구였다. 광활한 분화구와 아름다운 산세를 보며 우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바람 속에서 장엄한 세월을 만난다. 선사시대부터 비와 바람, 공기, 햇빛이 이 같은 장관을 빚어냈겠지.

또한 반둥은 여행의 묘미인 먹을 거리, 볼 거리, 휴식 거리를 모두 갖추고 게다가 물가까지 싸니 여행객에는 금상첨화다. 같은 것이 들어 없는 수공예품은 이곳 장인들이 예술가임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서부 자바의 오래된 정원’에서 추천한대로 우리 일행은 반둥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Sunaryo 선생님

의 갤러리 SSAS에 갔다. 입구의 낙엽송은 시골집의 감나무처럼 우리를 편안히 맞아준다. 돌과 금속, 나무, 종이, 등 재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림과 조각, 설치 미술을 넘나드는 큰 예술가이다. 선생님의 작품 세계는 잘 알지 못해도 그는 자연을 깊이 사랑하고 인간을 족히 사랑하는 예술가이다. 그는 사라지는 자연과 전통에 대한 안타까움을 안고 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사라지는 원시림이나 동물들, 화산 폭발로 인한 족자의 아픔까지 예술의 장르 구분 없이 나타낸다. 이곳은 시각 예술, 공연 예술, 문학, 영화, 사진, 건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교육하는 갤러리 문화 센터라 한다. 선생님의 꿈대로 모든 문화 예술인들의 열린 공간인 셈이다. 야외 테라스에서도 차를 마시며 벽 쪽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바닥의 돌조차 조각품이며 앉는 의자도 나무 조각품이어서 잠시 중세 유럽의 귀족이 된 듯한 착각이 든다. 기념품 가게, 야외 공연장, 기도실, 심지어 화장실도 선

생님의 세심한 배려 속에 제자리에 있다. 그의 기도 실은 보석으로 수놓은 것같이 아름답다. 선생님은 그곳에서 분노와 슬픔을 삭이고 희망의 사명을 얻는 것이 아닐까. 화집을 한 권 샀는데 첫 장에 한글과 옛날 동전 속에 지문이 있고 아래쪽에 바틱 그림이 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인사동과 부산의 경성대서 전시회를 한 일이 있다. 그 때 본 인사동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한다. 예술가의 열정으로 바로 작품에 반영시킨 것이다.

사공경 선생님과 개인의 친분이므로 우리는 선생님의 별장에 초대 받는다. 단아한 고유 의상을 입고 얼굴은 온화하고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반갑게 맞아주신다. 사모님이 준비한 커다란 대바구니에 담긴 예쁜 음식은 보기조차 아까웠다. 음료수가 우리나라의 수정과와 꼭 같다. 선생님은 이곳에서 지인들

을 만나고, 사색과 휴식을 취하며 작품의 영감을 얻는 듯하다. 아름다운 자연과 간결하고도 용도미를 살린 이 건물은 설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자재, 텃밭과 정원수..... 모두 선생님의 구상 아래 이루어진 작품이다. 선생님은 훌륭한 건축가이기도 하다. 어찌면 주위 경관과 이렇게도 어울릴 수 있다니!

돌아오는 차속에서 할로 반동을 외치며, 반동의 낭만과 자유를 생각해 본다. 문화와 예술에 젖어 씩씩하게 살아갈 우리 교민들이 아름답기만 하다. 오늘도 나는 꿈속에서 산책자를 위한 약속의 땅, 반동의 자연 속에 이슬로 맺혀 있다.

<참고 문헌 : 서부 자바의 오래된 정원/사공 경>

### 166회 한인회 문화연구회

일시: 7월 9일 8:00~ 16:00

탐방지: 바틱 공장(탐방 및 실습)  
그동 28 박물관  
두타갤러리/ 도자기센터 외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



수나르노 별장에서 작가와 함께

# 문화회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문화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개관한 한인회 '문화회관'은 작지만 쾌적한 공간에 교민들께서 보내주신 양서들이 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 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성으로 마련한 '문화회관'에서 우리사회가 문화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 나가길 바라며 교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 [도서관]

우측 도서관 이용안내 참조

## [휴게실]

TV시청, 신문, 잡지, 도서 열람 가능



## 한인회 도서관 이용안내

### ★ 이용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 이용 대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 한인회원 가입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 ★ 대여 방법

- 가. 회원증 사본 제출
- 나. 보증금 Rp.200.000 (요청 시 환불가능)
- 다. 대여 권수 및 기간
  - 도서 2권 / 기간 7일
- 라. 대여 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가 가능 합니다
  - 전화 및 직접 방문
- 마. 반납 연체 및 분실 시
  -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당 Rp.1000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 [소규모 모임]

각 문화단체 및 세미나, 동우회 등 소규모 모임 장소대여 가능



※한인회원가입 및 문화회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인회 사무국(021-521-251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인회 지정 가맹점 안내

한인회원증을 소지한 교민들은 다음의 <한인회 지정 가맹점>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 호 명	주 소	전화번호	이용 가능 카드	할인액	기타
한 국 관	Jl. Sudirman 1 Panin Bank Centre, Jakarta	720-7322	ANZ	15%	
가나 레스토랑	Jl. Sudirman Kav.1 Land Mark Bd, Ground Fl.	571-0909	모든카드	10%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이용금액 무제한)
아랑갈비	Jl. Niaga Raya Kav.1-4 Blok CCBD, Cikarang Jababeka	8983-5988~9	모든카드	10%	골프연습장(JABA D/R) VAUCHER 10% D/C
씨티서울	Jl. Jend Sudirman Kav.52-53 Lot, 6, Jakarta	5289-7506	모든카드	10%	
한 성 관	Jl. Boule Vard Raya LB3, No.22 Kelapa Gading	453-3033	VISA, MAS-TER, BCA	10%	
한 우 리	Ruko Bakit Raflesia Blok AB-7, Jl,Alternatif Cibubur	8459-2871	VISA, MAS-TER	10%	
장터 레스토랑	Jl. Raya Batavia Blok LC 08, No. 9-10 Kelapa Gading Jakarta Timur	4585-4302		10%	
뉴서울 슈퍼	Jl. Melawai Raya 109, Jakarta Selatan	723-6238	VISA, MAS-TER, BCA	5%	

# Indonesian Heritage Society

## Korean Section

Indonesian Heritage Society / Korean Section

(스나얀 소고 옆 Sentral Senayan 1 건물 17층), Tel: 021-572- 5870



### Museum Tour

한국인 안내 봉사자들이 최근 다시 개장한 술라웨시, 말루쿠, 파푸아 관에 새로 선보인 유물에 관하여 2차 번역을 한 후 지난 6월 19일(금)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번역은 주로 전인영씨가 맡아서 큰 수고를 해주었고 술라웨시는 김현숙씨가 발표를 맡아 아주 재밌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누사 땡가라, 말루쿠, 파푸아에 대해 공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한국인은 모두 8명입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영어투어도 하고 있습니다. 국립 박물관 정기 한국어 안내 봉사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과, 셋째 주 토요일 9시 30분에 진행되며, 국립 박물관 현관로비에서 시작되어 구관 신관의 전시관을 모두 합치면 대략 2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 Open Lecture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10시 헤리티지 도서관

지난 5월 열린 강좌 시간에 강사 송삼순(한국 학교 재직)님께서 '인도네시아의 근현대 정치사'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무척 흥미진진한 얘기로 모인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주셔서 참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6월에는 이재원님께서 '보로부드르'에 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심도 깊게 보로부드르를 연구하고 발표해 주셔서 모두들 아주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7월에는 방학이라 휴강합니다. 8월 열린 강좌에서는 천영민님이 강사가 되어, 보로부드르 및 불교 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School Program

학교 프로그램은 6월 26일(금) JIKS 초등학교에서 2학년 재학생 85명을 대상으로 와양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초등학교 와양 발표는 와양 인형극 관람, 파워포인트 발표, 와양 제작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와양 인형극을 위해 변사를 맡아 애를 써주신 김영덕씨 뿐만 아니라 김종심, 이미자, 기경화씨도 인형조종을 위해 일을 많이 했고, 임희옥씨가 파워포인트도 맡아서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와양 파워포인트는 이수진씨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어서 7월 3일(금)에는 한인성당의 성모유치원에서 와양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의 며칠 뒤에 와양 제작 과정에 들어가서 유치원생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와양 공연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Photo Club

사진반은 6월 10일(수) 따만미니 정문에서 일몰 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우천 관계로 취소하였고, 18일(목) 오전에 '컴퓨터와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2차 강좌 실시하여 Photoshop과 Face Book 사진 올리기 배웠습니다. 7월 중순경 안쪽에서 바다 사진과 일몰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사진반은 9월 말경에 헤리티지 도서관에 사진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진을 9월 중순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 박물관 책자 판매 안내

무궁화에서 국립박물관 가이드 북 판매를 재개하여, 헤리티지 도서관에서 판매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4만 루피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허락해주시고 도와주신 박은주 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공동 회장 이수진 0816 1300 210

이중숙 0812 838 1294



## 바누왕이 유황광산에 가 보면

글/사진 김성월



유황광산 까와 이젠  
Belerang Kawah Ijen

자카르타에 사는 분들 ‘오십보백보’라고 하시겠지.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 어제 아침식사용으로 부탁한 샌드위치를 받아 호텔을 나섰다.

산으로 올라가다가 노란색 큰 트럭을 만났다. 트럭은 사람들을 잔뜩 태우고 있었다. 간밤에 비가 왔다. 우기가 끝나가는 시점이라 비가 병아리 눈물만큼 왔는데도 오르막이라 길이 미끄러운지 트럭 바퀴들은 제자리에서 빙빙 돌았다.

인도네시아 섬 전체에는 활화산이 약 300여개가 있지만 까와 이젠과 똑같은 곳은 없다고 한다. 오늘은 그런 멋진 까와 이젠(Kawah Ijen)으로 가는 날이다.

어제 분명히 이슬람사원이 저 멀리 있었는데 새벽기도소리가 하도 커서 호텔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4시에 잤다.

바누왕이(Banyuwangi)는 시골이라 공기가 맑아 소리도 잘 퍼져나가는가 보다. 말랑에 사는 사람이 바누왕이가 시골이라고 말한다면



오른쪽 유황 떨어진 모습.  
왼쪽은 땅바닥에 굳어진 유황.





브로모화산의 분화구 모습

춥듯 떨어지는 유황을 만져보는 사람 →

검은 연기도 꾸역꾸역 났다. 트럭에 탄 사람들은 유황을 짚어 나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한참 올라갔다. 주차장이 나왔다. 모든 차들은 주차 시켜 놓고 걸어서 올라가라고 했다.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산으로 인부들과 함께 올라갔다. 그들이 메고 가던 빈 광주리를 달라고 해서 어깨에 메어 보았다. 빈 광주리에 점심용으로 빵 몇 개 들었을 뿐인데 5kg나 된다고 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내 생각으로 한참을 갔다고 느껴졌다. 목이 마르고 다리가 아팠다. 사람들이 유황을 메고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빈 몸으로도 올라가는 것도 힘이 든데 유황을 멘 사람들은 내리막길을 평지처럼 걸었다. 정말 그들 앞에서 킁킁대면서 올라가는 것이 미안했다. 또 한참을 올라갔다. 중간쯤에서 짐을 지고 내려오다 쉴 참으로 빵 먹는 젊은이들을 만났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물었다. 청년은 길옆에 꽃말을 가리키며 숫자가 32Hm가 되면 분화구라고 했다. 그



청년이 지정한 꽃말의 숫자는 17Hm이었다.

산 중턱에 간이 휴게소가 있었다. 그곳은 인부들이 유황을 분화구에서 지고 와 무게를 다는 곳이었다. 한 책임자가 있었고 무게를 잰 영수증과 유황을 지고 정제하는 곳까지 가서 돈을 받는다고 했다. 그곳에서는 음료와 간식거리도 판매하고 있었다. 인부들이 숙소로 활용하기도 하는 곳이었다.

내가 선 곳이 제일 높은 곳 같았다. 고개를 휩, 돌리니 반갑다는 꽃말이 분화구에 꽃혀 있었다. 는 해발 2380m 꽃말 옆 분화구를 디디고 섰다. 까와 이젠 분화구 넓이는 5.466Hr이다. 멀리서 바라보니 동화책

유황 정제 현장에서 두 번째 천으로 걸러내는 과정 →

← 유황을 광주리에 담아 나르려는 인부들 그들은 마스크도 없이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



질 때는 오렌지색인데 식고 굳으면서 노랑으로 변했다.

가스가 자욱했다. 유황이 줄줄 흐르는 현장은 마치 독감이 유행하는 병원과도 같았다. 인부들의 기침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가파른 길을 내려와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방독마스크를 사용해도 나는 콧물과 눈물까지 줄줄 흘러내렸다. 그곳의 인부가 말하길 내 몸이 약해서 그렇다고 했다.

유황이 흘러내리는 배관은 약 70개 정도이며 배관 설치만 16년째 해온 미스파리씨를 만났다. 그는 회사에서 자신의 건강상태 염려하여 종합검진을 받아 보라고 권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이유는 혹시나 못 고칠 큰 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것이 더 좋으면서 기침을 계속해냈다.

분화구 물의 부피가 2억m<sup>3</sup>에 달하며 물의 온도가 가장 낮을 때는 50도 정도이나 높ی 올라가면 섭씨 200도까지 된다고 한다. 나는 호수 가까이로 갔다. 물은 우아하면서도 잔잔했다. 미스파리씨에게 손을 넣어 봐도 되는지 물어 보고 잠시 손을 넣었다. 뜨거웠고 금방 빨갛게 달아올랐고 따끔거렸다.

한 페이지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놓은 듯했다.

까와 이젠을 브로모와 나름대로 비교해보았다. 브로모는 지프타고 신나게 말 타고 모래사막을 달려 계단을 올라갔다. 누구나 가기가 쉽다. 그래서 나도 십 년 동안 열다섯 번이나 가봤다. 브로모가 잿빛 양푼이 속에서 뽀얀 가스를 피워 올린다면, 까와 이젠은 잿빛 세숫대야 안에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연 청жат빛 물을 담고 있다. 물 옆에는 노랑 연기들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다. 하지만 까와 이젠은 약 2km 거리를 등산해야 하고 분화구 위에서 유황 캐는 곳까지는 구불뚱하고 경사진 돌길을 약 800m 더 걸어야 한다. 그들이 말하길, 뱀길(jalan ular)이라고 했다. 길이 너무 가팔라서 내려가는데 나는 식겁했다.

광산의 인부들은 약 380여명이나 된다. 나르는 사람 캐는 사람으로 나뉘지고 유황 캐는 사람은 고작 열 명으로 2교대였다. 그들은 유황이 흘러내리도록 배관 설치작업도 하고 배관이 너무 뜨거워지면 화재가 날 수 있다며 4시간마다 물을 뿌려서 배관을 식혀주기도 했다. 유황이 흘러내리는 하루 양은 배관 당 약 300kg이라고 했다. 뜨거운 액체로 떨어

그 물은 알레르기 피부에 좋다고 했다. 분화구의 물 색깔이 변하는 시기는 일 년 중 1-2월 중에 검붉은 색이나 초록색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 시기는 일주일에서 보름이 걸리며 그때는 독이 분출하기 때문에 인부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물의 색깔이 변하려는 징조를 volcanology seismografik 보다 자신의 경험으로 먼저 알 수 있다고 미스파리씨는 말했다. 하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언제 라디오로 일기예보 듣고 붓물이나 콩 타작 했던가, 날씨와 경험으로 하셨지.

인부들이 나른 유황은 깨끗하게 정제되었다. 고운 천으로 두 번이나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 감주보다 더 곱게 걸러냈다. 뜨거운 유황액체를 타일 바닥에 붓고 얇은 두께

인부들이 맨 유황의 무게는 보통 60 - 90kg 정도였고 최고 많이는 100kg까지도 메고 다녔다.

로 만들어 자루 속에 넣었다. 고대 그리스·로마에서는 유황을 훈증·표백에 사용하였고 그 후 의약 또는 흑색 화약으로 널리 쓰여 왔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유황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겠지만 설탕미백작용으로 사용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황을 오리에게 먹인다고 한다. 유황을 먹인 오리를 팔 개월 가량 키워 한약과 함께 다려 먹으면 암의 진행을 늦춰주기도 하고 진통을 없애주기도 한다고 했다.



## 대한항공 하계 운항 안내

자카르타/서울 노선 및 덴파사르(발리)/서울 2009년 하계 운항 시간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대한항공 항공편

####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2:05	07:10+1	매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45	20:45	매일
덴파사르 > 인천	KE630	03:10	11:15	일/월
		01:20	09:25	화~토
인천 > 덴파사르	KE629	18:05	00:01+1	월~금
		19:50	01:50+1	토/일

#### 2. 기간: 2009. 3. 29~

또한 2008년 6월부터 기 시행중인 신 전화 서비스는 한국어/영어 서비스를 각 지역 CALL CENTER에서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021-521-2180 으로 유선 연결 후 언어별 번호 선택하면 해당 언어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1번 :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 2번 : 한국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3번 : 영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4번 : 중국어 서비스
- 5번 : 일본어 서비스

###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84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우물안 개구리가  
영어장이 되기까지  
- 니콜라스의 체험영어 14



김남규 편집위원  
(코린도 그룹 이사)



대한민국 축구 7연속 월드컵 진출을 축하합니다.

김연아 선수의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금메달과  
WBC 야구 대회 준우승에 이은 또 다른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호, 2009년 7월호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도  
축구 영어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 16. 축구 영어

11) 7연속으로 :

7 times in a row=7 times consecutively

(주) in a row=consecutively 연속적으로 (중요한  
숙어와 단어임)

(예) I got 6 pars in a row yesterday =I got 6  
consecutive pars yesterday 어제 나 6 연속  
파를 잡았어

12) 응원단 :

Supporters=Cheering Squad =Pep Squad

(주) pep talk 격려의 말

13) 응원단장 : Cheerleader

14) 응원가 : Rooter's song

15) 어드밴티지 :

Advantage 심한 foul이 아닌 경우 심판이 whistle을 불지 않고 경기흐름을 위해 계속 진행시키는 것

다른 표현;

\* 대단한 선방이군요(골키퍼의) What a save!

(㉞) What a performance! 대단한 실력이군요! (축구뿐 아니라 다른 운동에서도 쓰임), performance: 실행, 수행, 일, 작업, 행위, 동작, 성능, 성적, 성과, 상연, 연기, 공연, (예) performance appraisal 인사고과

\* 이기든 지든, 내가 좋아하는 팀은 MU 이다. Win or lose, my favorite team is Manchester United

(㉞) 이기든 지든 Win or lose, 믿든 말든 Believe it or not(주요 숙어 필히 암기 바랍니다)

14) 빨리 배워 난 뭐든 : I am fast learner

(㉞) I am slow starter 난 발동이 늦게 걸려

15) 요령을 이미 터득했어 난

I already got the hang of this

(㉞) hang (미국회화체) 사용법, 요령, 하는 법 get the hang of =get into the hang of (회화체) 다루는 법을 알게 되다, 의 요령을 터득하다

기타 용어;

\* 성화봉송 : Torch relay

(㉞) Torch bearer 성화봉송 주자

\* 극장.경마장, 농구 경기장 등의 창이 쳐져 있는 박스석 Box seat

\* 역도 인상 : Snatch (㉞) 용상 Clean and jerk

# 17. 기타운동 / 영어



11) 자유형 : free style, crawl

(㉞) 접영 butterfly, 배영:·backstroke, 평영: breaststroke (NOTE) 박태환 선수의 낭보를 기대해 봅니다

12) 끝까지 해내기를 희망해 난

I hope to go the distance

(㉞) go the distance 끝까지 해 내다

13) 승자독식 : The winner takes all

# 18. 미국영어/영국영어



11) 자동차 번호판 :

License plate(미국), number plate(영국)

12) 자동차 가속기 :

Gas pedal(미국), accelerator (영국)

(㉞) step on it! =step on the gas! (미국 회화체) 속력을 내, 급히 서둘러! (자동차로 갈 때 이며 여기서 it은 gas pedal, 즉 가속기를 밟아!), 일반적으로 서두르다 는 hurry up (note) step on it! 경찰, 액션 영화에 자동차 추격전에서 매우 자주 나옴

13) 자동차 좌우회전 지시 깜박이 :

Turn signal(미국), indicator(영국)

14) 통화 중입니다

Line is busy(미국 영어),  
Number is engaged(영국 영어)

15) 의심 많은, 회의적인 :

skeptical (미국), sceptical(영국)

# 19. 틀린 발음 영어

11) Alex : 엘릭스(O), 알렉스(X)

(주) 남자 이름; Alexander의 애칭, (note) 한국아줌마들 에게 인기가 있는 Alex의 정확한 발음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Symposium : 심포우지엄 (O), 심포지움(x)

13) Oscar : 아스커(O), 오스카(X)

(주) 매년 아카데미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작은 황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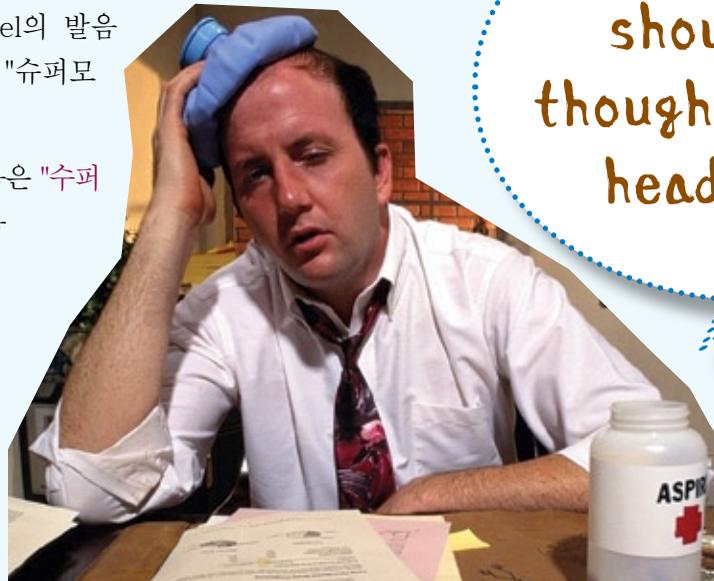
14) Thrill : 뜨릴(O), 스틸(X) (주) thrill 전을

15) Announcer : 어나운서(O), 아나운서(X)

다른 것들;

\* model의 정확한 발음은 "마들" 그리고 Supermodel의 발음은 "슈퍼마들"이다. "슈퍼모델"은 틀린 발음

\* Supermarket의 발음은 "슈퍼마켓"이 정확한 발음



# 20. 숙어/유용한 부사

11) 계속하여 행하다, 철저히 규명하다, 끝까지 따라가다 :

follow up something (with someone)

(주) follow-up은 명사형이며, follow-through는 golfer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로써, 끝까지 swing을 다 뺏어주는 동작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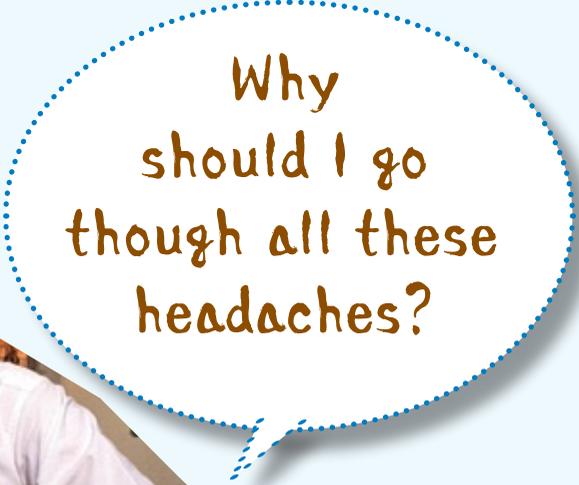
12) 통과하다(심사, 의회 법안 등) : go through

(예) You should go through the screening applications first and then interview with Department Head in charge. Finally, you will have English interview with the Country Manager from Korea

먼저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 담당 부서장과 면접을 거쳐야 만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온 지역담당 총책임자와 영어로 면접 보게 될 거야

13) 시련, 고난을 겪다 : go through

(예) Why should I go though all these headaches? That's not what I want from the beginning/ Come on! Listen to me. This



is just beginning. If you cannot overcome it, you will not be survived in this tough organization :

도대체 이런 골치 거리를 왜 겪어야만 하는 거니? 내가 원했던 건 처음부터 이게 아냐/내 말 들어 이 친구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그것을 극복 못하면 이런 험한 조직생활에서 살아남지 못해

(㉞) from the beginning 애당초, 처음부터, overcome 극복하다

**14) 전화가 통하다 : go through**

(예) I tried to reach him several times, but the phone did not go through

그에게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전화가 안돼

**15) 과정, 업무 등을 끝마치다 : Go through**

(예) I was not able to go through my English Language course.

영어 과정을 다 끝마칠 수가 없었어

**(NOTE)** Go through의 위 12,13,14, 15는 정말 자주 쓰이고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다 터득하는데 꽤 많은 세월이 필요했었습니다. 꼭 암기 바랍니다

다음 15호에는 21) 유용한 명사, 22) 알아두어야 할 형용사, 23) 두 단어 영어, 24) 인터뷰 영어, 25) 약어가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짱” 니콜라스 올림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보다 많은 교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한인사회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기구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방법**

하기 한인뉴스 계좌번호에 정기구독료를 납부하시고

1. 성명(한글 / 영문)
2. 주소
3. 연락처(회사나 자택 / 핸드폰 번호)
4. 구독료 납부 영수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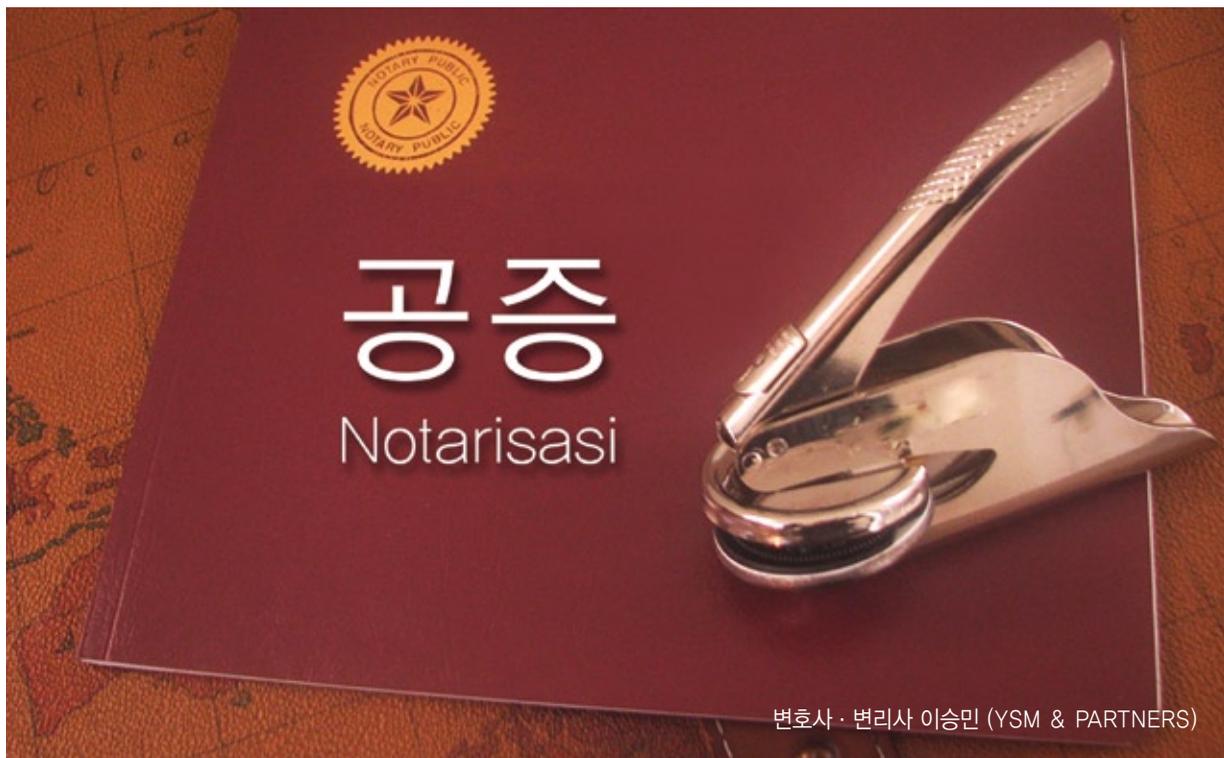
팩스: 021-526-8444 나 이메일: haninnews@naver.com 로 보내주시면 정기구독 신청확인서와 함께 1년간 한인뉴스를 발송해 드립니다.

**정기 구독료 (1부/1년)**

- JABOTABEK : 30만 루피아/년
- 기타 지방 : 40만 루피아/년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EWS Fax : (021) 526-8444



변호사 · 변리사 이승민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에는 법규 상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다. 법무부에 제출하는 주식회사의 설립 정관, 개정된 정관, 법무부에 의무등록 의무가 있는 주주총회의 회의록, 주주들의 결의서, 채권양도 증서, 저당권 제공증서, 양도담보권 제공증서, 부동산 매매증서 등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하며 공정증서로 작성은 아니지만 공증을 받아야 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서류들이 적지 않다.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수험생들의 인도네시아 거주에 관한 서류, 동산 혹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합작 계약서, 상품 혹은 용역 계약서, 현금 차용 계약서, 합의서, 일반 계약서, 위임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서류에 공증을 받고 있다. 공증을 받는 목적은 입증을 하기 위해서이며 공증은 공증인(Notaris)이 한다. 인도네시아는 공증인 제도는 화란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국민까지도 공증인의 서비스를 비교적 잘 받고 있는 나라이다. 종전에는 의뢰인이 공증 신청이 있으면 공증받는 내용의 적법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신청 사항에 대하여 공증을 해줬으나 지역별로 공증인 감독회를 설치하여 공증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공정증서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은 데도 공증을 해준 공증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고, 차명사

업을 금하는 2007년 4월 투자법 발효 이후 많은 공증인이 공증을 신청한 내용이 실정법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법치 정치 정책이 공증 분야에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의 공증 제도와는 상이한 인도네시아의 공증 제도를 설명한다.

## 1. 공증의 종류

공증에는 (i) 공정 증서 공증 (ii)서명 인증 공증 (iii) 등록 공증, 이상 3 종류가 있다.

## 2. 공정증서

2.1. 공정증서의 원래의 뜻은 국가기관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작성한 일체의 증서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혹은 사권에 관하여 공증인 혹은 공증업무를 행하는 자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한다.

2.2. 공정증서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이 적법한 문서로 추정되며, 소송에 있어서 우선적인 증거능력을 가지



야 하며, 당사자는 공증인 앞에서 증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상기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미비해도 공정 증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증서 내용은 상실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문서 인증 효력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고 있으며, 채무확인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 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의 정관, 재단의 정관, 양도 담보권 증서 혹은 저당권 증서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법규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나 중요한 계약서, 주주총회 회의록, 임대차 계약서, 금전대여 증서 등 중요한 사항은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그 내용을 준비하여 일단 공증인에게 넘겨주면, 공증인이 법정양식에 따라 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그 내용 전체를 당사자에게 낭독 후 당사자들이 이 서명한 공정 증서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하고 공정 증서 사본을 작성하여 공정 증서 사본에 공증인만 서명하여 당사자에게 내어 준다. 따라서 공정 증서 사본에는 당사자 및 증인의 싸인은 보이지 않고 공증인의 싸인과 직인만 보인다. 간혹 외국인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콤플렉스인 사람이 있으나 실정법이니 현지 제도에 따르던지 거부하든지 당사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지 제도대로 따라 공증을 받는 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 출두하여, 공증법인이 증서내용을 당사자에게 반드시 다 읽어 줘

### 3. 서명 인증 공증

서명 인증 공증이란 당사자들이 증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공증인을 찾아가서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것을 공증인이 인증해 주는 공증인의 법률행위를 뜻한다. 종전에는 공증인은 그 내용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고 그 증서에 당사자들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했다는 사실과 서명한 날짜를 인증해줬다. 증서에 싸인한 사람이 그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췄으며 다른 사람이 아닌 당사자 본인 확인임을 확인해줬으나 근래에 와서 공증인에 대한 관계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고 법규를 어긴 공증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증인이 서류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의 서류에 대해서는 많은 공증인이 인증 공증을 거부하는 추세이다 서명 인증 공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반드시 공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서 사용할 서명 인증 공증은 인도네시아어가 아닌 영어로 공증이 바람직하다.

### 4. 등록 공증

등록 공증이란 당사자가 이미 서명을 한 서류를 공증인이 등록만 해주는 공증인의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등록을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등록해도 무방하다. 등록 공증은 해당 서류가 존재해 있다는 서류 존재 증거 능력이 있다.

사문서 등록 공증 뿐만 아니라 국제 간에 필요 때문에 공문서에 대한 등록 공증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종전에는 등록 공증은 서류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등록 공증을 해줬으나 근래에 와서 공증인에 대한 관계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고 법규를 어긴 공증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증인이 서류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의 서류에 대해서는 많은 공증인이 등록 공증을 거부하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서 사용할 사문서는 인도네시아어가 아닌 영어로 등록 공증이 바람직하다.



### 5. 목적에 맞춰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을 받는다는 뜻은 상술한 공정증서 공증, 서명 인증 공증 혹은 등록 공증을 받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증을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당사자의 공증 목적을 생각 후 상술한 세 가지 공증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사항은 법규 상 반드시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법정 특정 사항을 공정증서로 공증받지 않고, 서명 인증 공증 혹은 등록 공증을 받으면 법률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증을 받기 전에 목적을 확인하여 목적에 맞게 공증을 받아야 한다.

### 6. 중요한 계약은 공정 증서 공증이 바람직하다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련하여 상호 의무와 권리를 약정하며,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손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다. 계약서상에 손해 배상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 제1365조에 따라 손해 배상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계약서의 내용을, 특히 계약 위반 시 배상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면 당사자에게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치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여 계약 위반 예방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 시에도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처리가 덜 어렵다. 또 공정증서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우선은 계약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는 분쟁의 여지가 적어지며 공정 증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공정 증서의 내용 부인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

가 주어져 있다. 법규상으로 반드시 공정 증서로 공증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계약이 아닐지라도 중요한 계약은 공정 증서로 체결함이 바람직하다.

### 7. 공증인(Notaris)

7.1. 공증인이란 당사자 혹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특정 사실, 법률행위, 법률관계 혹은 사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문서를 등록해 주는 권한이 관계법령에 의해 주어져 있는 공직자로 구분이 되며 공정 증서 공증한다는 직무의 특성 때문에 공증인은 국가기관처럼 인도네시아 국가 휘장(독수리 마크)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증인이 수행하는 직무를 보면 공무원이 해주는 것과 같은 유사한 일을 하고 있으나 법적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변호사나 변리사와 같은 민간인의 신분이다. 따라서 소정의 공증비를 받고 일을 해주고 있다 한 국에서 공증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관할 지방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 공증인은 독립된 존재로써 관할 인권 법무부 장관의 인사 및 업무 감독을 받고 있다.

7.2. 공증인이 되려면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공증인 과정이 있는 국립대학에서 2년 동안 공증인 교육 과정을 마치고 공증인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나이는 최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법무인권부 장관이 임명

하고 발령한다. 처음에는 주청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 의무가 있으며 5년 시골 근무 후에 법무부 장관에게 주청 소재지에 개업을 신청할 수 있다. 공증인은 65세에 자동으로 정년 퇴직이 되며 퇴직하는 공증인이 처리했던 공정 증서는 법무인 권한관이 지정하는 공증인이 보관한다.

## 8. 공증인과 토지거래 문서 작성관의 차이

대부분의 공증인(Notaris)은 토지 거래 문서 작성관(Pejabat Pembuat Akta Tanah/PPAT)을 겸직하고 있어서 Notaris와 PPAT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가 많으나 공증인과 토지거래문서 작성관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별개의 직분이다. 공증인은 문자 그대로 공증 직무를 수행하며, PPAT는 토지거래 문서를 작성 직무를 수행한다. PPAT는 업무의 관할 영역이 토지가 위치해 있는 시/군으로 제약을 받으나 공증인의 직무 관할 지역은 제한이 없다.

## 9. 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 공증

본국에서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된 서류를 현지에서 사용이 필요한 경우 혹은 반대로 현지에서 인도네시아어 혹은 영어로 작성된 서류를 본국에서 사용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영사 확인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로 작성된 서류를 공증해주는 공증인도 있고 거부하는 공증인도 있다(\*한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공증받는데 애로가 있으면 필자가 도와줄 수 있다).

## 10. 공정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공정 증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죄는 중형에 처한다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형법 제266조는 공정 증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범죄에 대하여 징역 최장 7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 증서에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진술한 사람이나 사실과 다른 공정 증서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같은 형량을 적용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공정 증서의 가치와 효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형량에서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합작 법인의 임시 주주총회를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았으나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무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공증인을 찾아가 공정 증서로 변경하였으면 형법 제266조에 해당된다. 현지 법인의 주식을 한국에 있는 본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나 합작 법인으로 로칼 파트너가 있고 혹시라도 로칼 파트너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커진다. 로칼 파트너가 공정 증서로 공증된 임시 주주 총회 회의록이 임시 주주 총회 개최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회의록이라고 형사 고소를 해버리면 형사 책임을 면하기 힘든 사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 증서 공증은 사실대로 함이 바람직하다. 공정 증서 공증을 사실과 다르게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크다.



# 드라마에서 떠올린 바하사

글 : 허영순 번역 작가 (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 제공 : KORINDO/KBS WORLD INDONESIA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었는데, ‘역시나, 여러 분야 해박 하시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분을 뵈면서 아는 것 만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이 떠올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항상 옳고, 정답이라는 오류를 범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살아가면서 더 많이 읽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바라본 자카르타 출근길……

매일 지나는 길이지만 그날 그날 날씨에 따라 다르게 느껴 집니다.

길가 나무가 맑은 녹색 빛을 띠고 있어 마음도 맑아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구름이 하늘을 가려 세상이 잿빛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우울한 날이 될 수도 있고,

비가 오는 운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왼쪽 또는 가운데서 바라보면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이 보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바라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느껴지는 세상…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이해하고, 나누고…

인도네시아가 모국이 아닌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바로 알고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인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치지 않고, 상황과 여건에 물들지 않고, 꾸준히 인도네시아어를 계속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술약국집 아들들 Putra-putra Kebanggaanku

술 약국 집 아들들 을 보면 마음이 따듯해 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간의 정이 느껴지는 드라마라고 해야 하나? 엉뚱하지만 나이에 걸맞지 않게 순수한 첫 사랑의 기억을 가슴에 담고 사는 장남 진풍, 바람기가 가득하여 순 날라리 같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마음 여린 대풍, 똑똑 하면서 남을 배려 하고 소외된 사람 편에 서며 약자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셋째 선풍... 남자 이지만 여성의 감성을 갖춘 미풍.

진풍의 첫사랑 헤림이 유방암으로 임종을 맞이 합니다.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해서... 40대에 접어든 중년의 사랑이라고 해서 모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술 약국 집 아들들 이 두 주인공을 통해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과 우정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림이 얼마 후 임종한다는 소식에 술 약국 집 최고 어른 할아버지...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에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고 싶어 하는 헤림 가족을 위해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부분을 행동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보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의사인 대풍이 헤림이 주치의를 만나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대풍에게 물으며 할아버지의 현재 심리 상태를 말해 줍니다.

“할아버지가 내내 과일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시더니 그냥 끝내 둘러보시지도 못하고 오셨더군요. 그러니까 뭐라 대?”



Kakekmu *mondar mandir* di sekitar rumahnya membawa *parsel buah*.

(*Bingkisan buah*) 과일 바구니.

### *mondar mandir*

“이리 저리 왔다 갔다” 같은 공간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사용 합니다.

예) Pria itu *mondar-mandir* di depan ruang operasi untuk menunggu istri yang sedang melahirkan anaknya.

남자는 출산하는 아내를 기다리며 수술실 앞을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다.

Jangan kau terus ber*mondar-mandir*, suasana jadi tidak nyaman.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정신 없잖아.

### *Mondar-mandir*

고민되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의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구어체로는 *Bolak-balik*이 “왔다 갔다” 자주 사용 합니다.

## Hilir-mudik

버스, 배 또는 운송 수단 중 어떠한 것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왕복) 할 때는 **hilir-mudik**을 사용합니다.

예) Kapal jalur surabaya - Jakarta **hilir-mudik** sebanyak 4 kali dalam sehari.

수라바야 - 자카르타 행 바는 왕복 일일 4회 운영한다.



Tapi dia **tetap** tak bertemu mereka.

여기서 **끝내(여전히)**라는 표현으로 **tetap**을 사용하였습니다.

끝내 : 종일 내내 변함 없이

**Tetap**은 변함 없는, 고정적인, 예전 이나 지금 이나 변하지 않는 어떠한 것을 표현 합니다.

예)

Anak itu **tetap** pintar.

그 아이는 여전히 똑똑하다 (예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똑똑하다)

### 참고

- Karyawan **tetap** - Karyawan kontrak 또는 Karyawan sementara.

고정직 근로자(정규직) 계약직(비 정규직) 또는 비 정규직 이지만 일정 기간 계약을 하지 않은 직원.



Jadi apa yang dikatakan dokter itu?



집으로 가는 길  
Pelabuhan Hatiku

여러 가지 상황의 가정사를 보여주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드라마 “집으로 가는 길”.

유명 모델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잘나가는 기획 팀장 유지수. 본인은 부인 하지만, 마음은 일본인 모델 히로에게 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로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하는 지수를 보고 미령이 말합니다.



아가씨, 그 사람 얘기 할 때 눈이 반짝 반짝 빛나요.

“Matamu **berbinar** saat membicarakannya tadi”

**Berbinar** (반짝 반짝) 빛나다 라는 표현은 이 외에도 **Bersinar, bercahaya** 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빛을 표현하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어근이 **Cahaya**인 **Bercahaya**는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거나 얼굴에서 빛이 날 때 또는 빛이 나는 어떠한 형태나 해/달 및 전등, 초, 불과 물, 보석에서 빛이 남을 표현 할 때 주로 사용 합니다.

예)

**Cahaya** bulan menyinari(**Sinar**) wajah Su in.  
달 빛이 수인의 얼굴을 비추인다.

**Ber + cahaya**

Batu pada perhiasan itu sangat ber**cahaya**.

장신구의 보석이 상당히 (굉장히) 반짝 거린다.

Wajahnya ber**cahaya**.

그는 얼굴에서 빛이 난다.(광채가 난다)

어근이 **Sinar**인 **Bersinar**는 **Bercahaya** 와 그 쓰임새가 유사하지만 **Berbinar**와 같이 눈빛을 표현 할 때 사용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인생 또는 장래가 밝은 미래, 경력이 화려 함을 표현 할 때 주로 사용 합니다.

예)

**Sinar** lampu itu menerangi seluruh ruangan.

전등 빛이 온 방안을 밝게 비추다.

Nama bintang film itu semakin **bersinar**.

그 영화 배우는 점점 이름을 날린다(빛을 본다).(광명)

속어 처럼 쓰이는 경우

**Sinar matahari** : 햇빛

**Sinar surya** : 태양 광선

## 참고

● 단, **berbinar**는 눈빛(Sorot mata)를 표현 할 때만 사용 됩니다.

예) Setelah diberi hadiah, mata ibu **berbinar-binar**.

선물을 받은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 반짝 빛났다.

## Tip

**Sifat** 과 **Sikap**의 차이.

Perbedaan antara **Sifat** dengan **sikap**

**Sifat**은 **karakter** 와 같이 내면에서 드러나는 성격 이나 성향을 말하며,

**Sikap**은 **tingkah laku** 과 같이 행태,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성향을 말합니다.

Wanita itu **sifatnya** manis.

(Murah hati 인정 많은, lembut부드러운, pemarah화를 잘 내는, ceriah 밝은/명랑한)

그 여성은 성격이 좋다.

**Sikap** wanita itu, tidak sopan

그 여성은(행동은) 예의 없다.

**Sikap** bisa menunjukkan **sifat** seseorang.

행동은 성격을 알게 해 준다.

# 재외동포 장기(모국수학) 교육과정 운영 안내

국립국제교육원(구,국제교육진흥원)과 국립공주대학교는 재외동포 장기(모국수학)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모집 인원 및 교육 기간

과정명	교육기간	인원	접수기간	추천기한
장기(4기)	2009. 9.1~11.30	100명	2009.5.1~2009.6.19	2009. 7.15
장기(5기)	2009.10.1~12.31	100명	접수 및 추천(일시) 지나도 교육과정 참가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관추천이 있을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접수, 선발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 지원 자격

1. 외국에서 12년(11년) 이상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재외동포로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공관장의 특별 추천을 받은 외국인 (입학허가자의 20% 이내)
3. 본 과정을 이수한 자도 재지원 가능

## \* 교육경비 : 1,566,000원

- 수업료 600,000원
- 기숙사비 420,000원 (2인 1실 월 140,000원×3월)
- 식비 546,000원 (2,000원×91일×3식)
- ※ 입·출국 등에 의한 기숙사 입사일수 추가가 있을 경우 기숙사비 및 식비가 추가됨

## \* 교육운영

- 선발 및 운영관리  
국립국제교육원 (조연홍 연구사 02-3668-1343 팩스 02-741-7408)
- 등록 및 교육운영: 공주대학교  
(문의: 중국어·영어-이연주 041-850-6031/일본어-이희형 041-850-6032)

## \*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재외 한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한국교육원·한국학교)
- 재일 한국민단(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nied.go.kr> 다운로드 가능)

## \* 제출서류 (급한 경우에는 팩스 우선 송부)

1. 지원서 (소정양식) .....1통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통
3. 재외국민·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거주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 국외 입양인의 경우 입양확인서)
4. 여권 사본 .....1통
5. 사진 (스캔파일) .....2장

2009년 6월 현재  
16개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세요?
2. 한국어·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싶으세요?
3. 한국어 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싶으세요?

재외동포 장기(모국수학)  
교육 과정에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재외동포교육센터

전 화 : +82-41-850-6030~6034 (주간), 82-41-850-8111 (공휴일, 야간)  
F A X : +82-41-850-6039 기 속 사 : +82-41-850-6141  
E-mail : hansaram@kongju.ac.kr  
홈페이지 : <http://www.kongju.ac.kr>(공주대학교)  
<http://hansaram.kongju.ac.kr>(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 단체협약 주요 쟁점 사안

지난 호에는 단체협약 주진 사례를 소개드린 바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단체협약 추진과 관련 통상적으로 노사간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

### 1. 제3자 개입 불가 원칙:

노동조합 설립 초기 집행부의 경력, 경험부족 및 기타 사유로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논리로써 대응하고 반드시 노사협상은 노사 당사자가 실행하도록 하여야 함.

- 1) 노사관계는 노사 당사자의 관계이며 자율적인 관계임. 특히, 단체협약은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와 사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약속인 바, 회사의 노와사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임.
- 2) 만일 노사간 의견대립으로 교섭시작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의거 노동부 → 산업분쟁법원으로 이어지는 중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바, 상급단체로의 교섭권 위임은 불필요한 것임.
- 3) 회사의 경영여건이나 조직문화를 모르는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할 수 없으며, 단체교섭이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분쟁상태로 치달아, 교섭을 주관한 제3자를 제외한 회사와 사원만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직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고유권한인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노조 스스로 존재가치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조합원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 것임.

### 2. 노조 전임자 요구에 대한 대응:

#### 1) 법적 근거: 노동조합에 대한 법령 2000년 21호, 29조

- (1) 사용자는 집행부/조합원에게 노사 양측이 합의 하였거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가한다.



방치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교와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 인도네시아 新노동법(발행 '04년 8월)
-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 +62-21-898-9696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 (2) 상기 (1)항에 명시한 노사 양측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 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a. 허가되는 활동의 종류
  - b. 허가 절차
  - c. 허가된 활동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

**2) 전임자 요구시 대응논리:**

- ① 노조 전임자라 함은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제공의무만 면제 받고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회사가 인정한 조합원을 말함.
- ② 하지만 조합원이라는 신분 이전에 노무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에 의한 근로자 신분을 갖는 것이고, 조합원 신분은 근로자 신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취업시간 중에는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므로,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행하여야 하는 것임.

③ 노조간부가 조합원으로부터 대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동일한 근무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과 자칫 반대세력으로부터 노조간부라고 일도 안하면서 편안하게 돈만 받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바, 전임문제 는 신중을 기해야 함.

**3) 이미 노조 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위의 논리에서도 알 수 있지만 노조 집행부 상근에 따른 부작용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 통상 노조 사무실에 앉아서 본연의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업무만 수행할 경우 자칫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사고가 흐를 수 있고 직원들을 또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법에서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제정시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회사의 허가를 득한 후 업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미 상근을 허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시간을 두고 상근제도가 바람직 하지 않음을 노조간부에게 설명하고 차기 단체협상시 비상근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볼 때 노조간부 상근 문제는 노조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3. 집행부 가입범위:**

**1) 법적 근거: 노동조합에 대한 법령 2000년 21호**

**\* 제3장 5조**

- (1) 모든 사원은 노동조합 결성 및 조합원이 될 권리를 가진다.
- (2) 노동조합은 최소 10명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 \* 제4장 15조

근로자가 회사내 일정 직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직책으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간 이권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될 수 없다.

### 2) 집행부 가입범위 제한:

위의 노동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 업무, 직위,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원에 대해서는 집행부 가입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예가 있을 수 있다.

- ① 직위가 대리급 이상인 자
- ② 직책이 계장 이상인 자
- ③ 인사/총무팀 근무자
- ④ 재무, 회계, 전산 근무자
- ⑤ 기획, 회사 정책 기안부서 근무자
- ⑥ 수습기간 중인 자
- ⑦ 비정규 사원

## 3. 노조의 인사권, 경영권 대한 참가 요구:

단체협약의 조항 중에는 인사에 관한 사항과 경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 바, 관련 조항의 협상에 임하기 앞서 협상 담당자는 인사권 및 경영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여야 함.

### 1) 인사권:

- ① 근로자의 인사와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인적 자원 관리 권한을 총칭하는 말로써,

- ② 모든 종류/직급의 근로자(조합원 포함)에 대한 채용, 임면, 이동, 승진, 승급, 복직, 해고, 감봉, 강등, 대기, 상벌, 교육훈련, 휴직 등을 명령하는 행위

### 2) 경영권:

회사가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총칭하여 경영권 이라고 함.

- ①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영자원 관리권한을 총칭하는 말로써,
- ② 기업의 합병, 분리, 축소, 해산, 양도, 사업장 및 지점 설치/이전/폐쇄 등 기업조직상의 행위
- ③ 생산이나 작업계획의 입안, 기계의 도입, 조업단축 등 생산방식이나 생산관리에 관한 행위
- ④ 자재의 조달, 제품의 판매 선전광고 등 영업 행위
- ⑤ 자금의 조달, 사용, 처분 등 재무상의 행위
- ⑥ 직제 개편 및 직무내용의 결정, 인사/관리/기업질서의 유지, 안전위생시설

### 3) 결론:

결론적으로 인사권과 경영권 관련 사항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일 노조에서 경영자의 고유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인사권/경영권 참여를 계속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서 관련자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적극 대응 필요함.



### 제 눈에 안경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부터 볼 수 없는 것까지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다릅니다. 외모, 성격, 태도, 좋아하는 것과 가장 미워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그 차이점 때문에 가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서로 귀찮거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안경”의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언니,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옷에 취향이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언니와 같이 백화점에 가려고 했습니다. 언니는 회사에 취직하기 때문에 옷을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출발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습니다. 백화점 안에는 옷을 파는 가게가 많았는데 언니는 그냥 보고 옷을 보러 들어가기가 싫은 것 같았습니다. 계속 여러 가게를 지나가다가 제가 언니에게 잘 어울릴 옷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그 가게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들어갔을 때 언니는 제가 추천한 옷을 보았는데 “이 옷은 어디가 좋은데? 안 좋잖아.”라고 속삭여서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옷을 찾았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언니에게 좋아 보일 옷을 다시 보아서 언니에게 추천했는데 언니는 다시 싫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세째 가게에 들어갔는데 다시 싫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제 눈에는 좋아 보였지만 언니의 눈에는 나빠 보였습니다. 언니를 위해 힘들어도 계속 옷을 찾아갔는데 언니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옷을 찾은 시간이 4시간이나 걸렸는데 아직까지도 사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어떤 옷을 사고 싶은지에 관심이 없어지고 다시 추천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언니는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그냥 사 보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언니는 옷을 사게 되었는데 그 옷을 보자마자 더 이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그냥, 까맣고 무늬가 하나도 없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니와 옷에 취향이 정말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람마다 정말 다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형제라도 어떤 것을 볼 때 어떻게 쳐다보는지는 다른 것입니다.



**쁘레실**

인도네시아 대학교 (U.I)

한국학과 2학년



김은미 편집위원의  
이달의 추천 도서



# 나쁜 BAD SAMARITANS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장하준교수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경제학 이야기이다. 장교수는 2003년에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뮌헨 상을,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미국의 양심’이라는 노엄 촘스키가 “독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생생하고, 풍부하며, 명료하다.”고 평했으며, 영국 『가디언』의 경제부장 래리 엘리엇이 “최고다. 탄탄한 연구를 기반으로 아름답게 서술된, 그야말로 경제학의 파노라마”라고 격찬한 책이다.

한국 국방부 불온도서로 지정되어 더 주목을 받았던 이 책은, 세계화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걷어내면서 오늘날 부자나라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 외국인투자, 민간기업과 공기업, 저작권, 재정 건전성, 민주주의와 경제와의 상호관련성, 문화와 경제와의 상호 관련성등에 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하나 하나 반박하고 있다.

FTA체결이 세계화의 첫걸음이라고 외치는 강대국의 주장대로 보호무역을 폐지하고 관세를 철폐하면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우 보호무역을 포기한 나라의 경제가 훨씬 더 어려워 졌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신들이 성공을 거둔 전략을 권하기보다, 실패했던 정책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일까?

이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이 개발도상국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존재한다. 그 이유는 하나다. 강대국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부자 나라들이 과거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은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낳았다.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통틀어 개발도상국 세계는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다.

여기서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본다. 이 저서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선진국의 지난 역사와 개발도상국들의 현재를 비교하여 세계의 전체적인 자본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비평적인 시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중소기업 위한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7

인건비 절감, 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와 투자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지금,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27.7%가 최근 3년간 보유기술 및 정보의 외부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88.9%가 대처곤란 등의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인뉴스는 기술유출 방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연구결과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지면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 제 4 장 인니에서의 기술유출시 대응방안 3. 지적재산권 침해

### □ 지적재산권 출원 서류

#### 2) 디자인권

##### ① 행정요건 심사

- 디자인이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소급하여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므로 디자인 등록 출원일은 매우 중요함
  - 소정의 신청서와 신청하는 디자인의 견본, 그림 혹은 사진과 디자인에 관한 설명서, 그리고 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공식 출원일을 부여받음
- 등록신청 된 디자인은 행정요건 심사를 받게 되는데, 신청인 혹은 대리인은 지적재산권청의 가부 결정이 있기 이전에 신청 철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지적재산권청은

3개월 이내에 서류를 보완토록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하며, 보완기간은 신청인의 요청으로 다시 1개월 추가 연장 가능함

-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 납부한 신청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행정요건 심사 후 신청인은 거절 혹은 취하간주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

-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통보사실이 확정되며, 확정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상업재판소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② 출원 공개

○ 행정요건을 갖춘 디자인 등록신청은 출원일로부터 최장 3개월 이내에 3개월 동안 일반인에게 공개함

○ 신청인은 출원서류 공개를 연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원일 혹은 우선권일(본국에서 출원한 일자)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③ 이의 신청

○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음

○ 디자인출원에 대해 이의가 접수되면 지적재산권청은 이의신청 사실을 디자인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디자인등록 신청인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설명을 제출할 수 있음

○ 지적재산권청은 디자인 신청서, 이의 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 설명서를 종합 검토하여,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 혹은 거절을 결정해야 함

##### ④ 실질 심사

○ 지적재산권청은 출원공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지적재산권청의 결정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혹은 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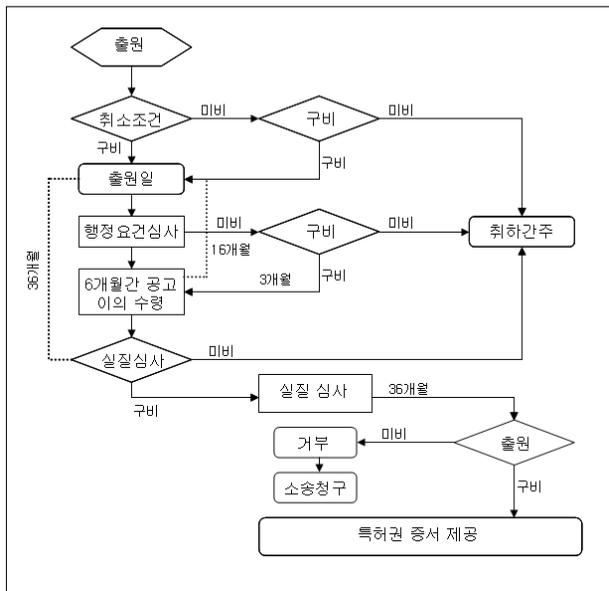
##### ⑤ 소송 청구

○ 디자인 출원이 거절되면 신청인은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업재판소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⑥ 등록 결정

○ 공개기간 내에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적재산권청은 공개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 등록증을 발급하며, 디자인 등록증은 출원일로부터 유효함

<그림4-2> 디자인등록 출원 절차



### 3) 상표권

#### ① 등록요건 심사

-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식 출원일자가 중요함
- 우선권 등록신청 시에는 보완시한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임
- 등록신청을 했다라도 등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도록 하고, 요건이 완비된 일자가 공식 출원일이 됨

#### ② 실질 심사

- 공식 출원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관이 내용 실질 심사를 실시하며 최장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침
- 심사에 통과되지 못하면 거절이유를 출원자에게 통지하면,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출원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서/보정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거절 결정됨

#### ③ 출원 공개

- 등록요건이 완비된 상표등록 출원은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적재산권청 게시관과 상표관보에 3개월간 공개함

#### ○ 공개 내용

-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상표 등록에 요청된 물건 또는 서비스의 구분 및 종류, 출원일, 우선권 등록 시 출원국가 및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상표 및 설명서, 외국어 상표의 경우 번역문

#### ④ 출원 공개 시 이의 신청

- 상표 등록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개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청장은 이의 접수 시 14일 이내에 상표등록 출원자 혹은 출원자의 대리인에게 사본을 송달해야 함

- 상표등록 출원자는 이의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 ⑤ 재심사

- 이의서와 답변서를 접수하면 공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함

- 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그 상표등록 출원자에게 상표등록 거절 통지를 하고, 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

#### ⑥ 등록 결정

- 심사관이 실시한 실질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며,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증서를 교부하고 상표관보에 상표등록을 공식적으로 공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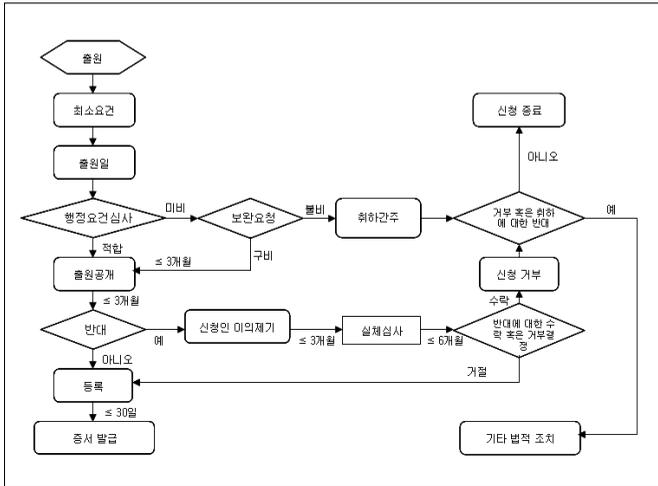
#### ⑥ 등록 거절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등록거절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함

- 재심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함

- 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업재판소에 항고 가능함

<그림4-3> 상표등록 출원 절차



□ 지적재산권 존속기간

- 모든 지적재산권의 존속은 출원일로부터 기산함
- 일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단순 특허권(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방법

1) 소송

① 특허권

-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특허권자 및 특허사용권 보유자는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권리가 없이 고의적으로 일반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5억 루피아(한화 약 6,18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권리가 없이 고의적으로 단순 특허권(실용신안)을 침해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2억 5천만 루피아(한화 약 3,09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특허 대리인(변리사)과 지적재산권청의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출원이 공개될 때까지 발명품과 모든 출원서류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위에서 언급한 특허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에 언급된 형사범죄는 민사상의 고소가 허용됨

○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면 재판관은 위반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품을 정부가 압수하여 없애도록 명할 수 있음

○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특허권 침해제품의 통관수속을 막고, 특허권 침해 관련 증거물 보존을 위해 상업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음

7) 100루피아 = 12.36원(2008.10.14 기준)

-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상업재판소는 당사자에게 가처분 결정을 송달하고 가처분 대상자에게 자기 변론의 기회를 제공함
-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상업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 30일 이내에 가처분 내용의 변경, 취소 혹은 확정 결정을 내려야 함
- 가처분이 취소되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등록된 특허가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는 특허권 보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음
  - 하지만 정부는 특허권 보유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하며, 정부가 규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때 특허권 보유자는 상업법원에 적정 보상청구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정부와 특허권자 간 보상액 관련 분쟁이 있더라도 정부의 관련 특허 사용권을 막을 수는 없음

② 디자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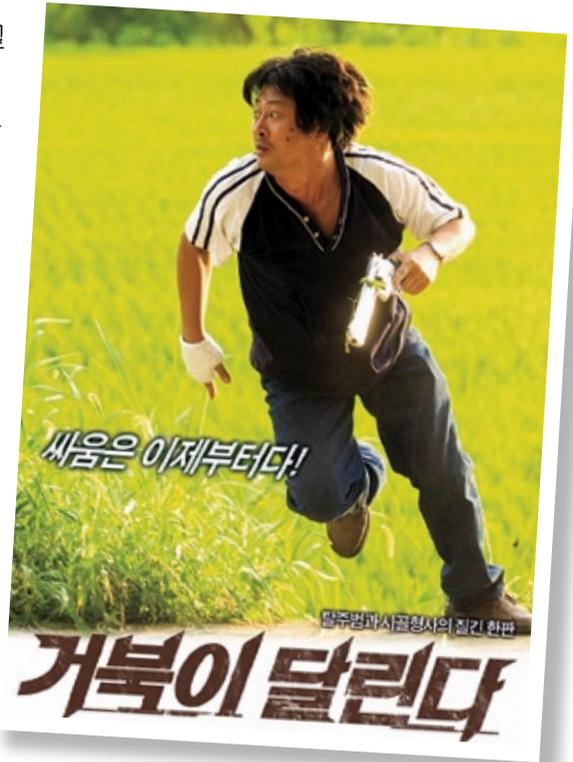
-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디자인권자 및 디자인사용권 보유자는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상업재판소는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대법원장의 허가로 그 시한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권리가 없이 고의적으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3억 루피아(한화 약 3,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에서 언급한 형사범죄는 민사상의 고소가 허용됨
-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디자인권 침해제품의 출현을 막고, 디자인권 침해 관련 증거물 보존을 위해 상업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음
  -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상업재판소는 당사자에게 가



# MOVIES

대한민국을 농락한 신출귀몰 탈주범이 예산에 나타났다! 하는 일이라곤 지역 발전을 위한 소싸움 대회 준비뿐인 시골마을 예산의 형사 조필성. 소싸움 대회를 준비하던 필성은 강력한 우승후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훔쳐 나온 마누라의 쌈짓돈으로 결국 큰 돈을 따게 된다. 난생처음 마누라 앞에서 큰소리 칠 생각에 목이 메이는 조필성.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갑자기 나타난 어린 놈에게 순식간에 돈을 빼앗기고 마는데, 그 놈은 바로 몇 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탈주범 송기태.

희대의 탈주범을 눈 앞에서 놓친 필성은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만 이런 시골마을에 송기태가 나타났다는 그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잃어버린 돈도 찾고, 딸래미 앞에서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에 직접 송기태의 은신처를 찾아 댕치지만 이번에는 송기태에게 새끼손가락까지 잘리는 수모를 당한다. 게다가 이 날의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예산서 형사들은 탈주범을 놓친 무능한 시골형사로 전락하고 필성은 형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어둠의 세력이 더욱 강력해져 머글 세계와 호그와트까지 위협해온다.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 덤블도어 교수는 다가올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해리 포터와 함께 대장정의 길을 나선다. 볼드모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자 그의 영혼을 나누어 놓은 7개의 호크룩스를 파괴하는 미션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 또한 덤블도어 교수는 호크룩스를 찾는 기억여행에 결정적 도움을 줄 슬러그혼 교수를 호그와트로 초청한다.

한편 학교에서는 계속된 수업과 함께 로맨스의 기운도 무르익는다. 해리는 자신도 모르게 지니에게 점점 끌리게 되고, 새로운 여자 친구가 생긴 론에게 헤르미온드는 묘한 질투심을 느끼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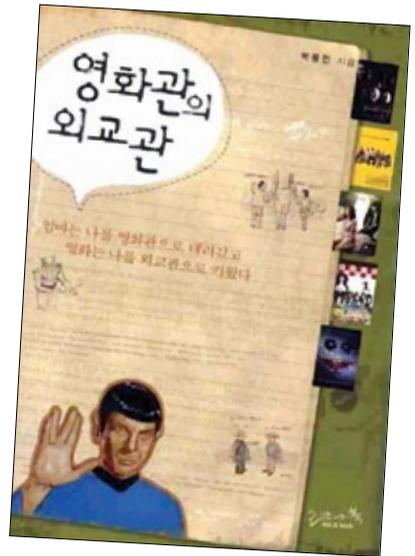
남겨진 결전을 위한 최후의 미션, 볼드모트와 해리 포터에 얽힌 치명적인 비밀, 선택된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대단원을 향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다!



## 영화관의 외교관 무료배송

저자 박용민 | 출판사 리즈앤북

2004년부터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영사를 지냈던 박용민 씨의 일기속 영화야기이다. 영화뿐만 아니라 예술, 음악 등 문화 다방면에 관심과 실천을 통해 얻은 해박한 지식을 본지 <한인뉴스>에도 3년여간 '박용민의 영화톡톡'으로 연재 돼 많은 교민들 사이에 화자된 장본인이기도 하다.



『영화관과 외교관』은 20여 년 동안 외교관으로 재직 중인 저자가 연극과 영화 관람, 글짓기, 그림,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얻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화를 읽어가는 시각을 보여주는 에세이집이다.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의 이야기부터 영화와 관련된 저자의 개인적인 소소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썼던 당시와 책을 출간하면서 새롭게 느낀 점을 각 장 마지막에 '여담'이나 '후기' 등으로 담고 있어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다. 배우와 감독에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저자의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견해가 돋보인다. 자신의 삶 속에 녹아 있는 영화 이야기를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풀어가고 있어, 부담 없이 읽으면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아이 러브 스타일

저자 김성일, 박태윤 | 출판사 시공사 저자 노무현 | 출판사 학교재

패션 파트와 뷰티 파트로 나뉘는 이 책은 김성일이 전하는 스타일링과 박태윤이 전하는 메이크업 비법이 담겨있다. 수많은 여배우들과 작업해온 김성일은 그동안 겪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와 새로운 스타일 비법을 공개한다. 꾸미지 않은 듯 세련되게 보이는 법, 센스 있는 스타일링을 위한 MUST HAVE 아이템 등 TV나 영화 속 배우들의 스타일을 훑쳐본다. 또한 스타일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 「How to」 정보까지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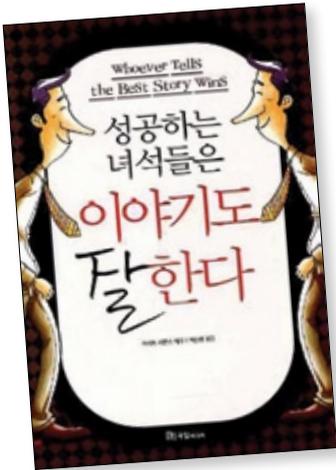


## 성공하는 녀석들은 이야기도 잘한다

저자 아네트 시몬스 | 역자 박선령 | 출판사 국일미디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제시하는 『성공하는 녀석들은 이야기도 잘한다』. 10년 이상의 기업 컨설팅 및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한 저자는 이야기가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 텔링은 과연 무엇인지 다양한 예시와 실습을 통해 들려주고 있다.

이 책은 효과적인 대화와 설득을 위해서는 이야기로 사고하는 스토리 씽킹으로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스토리 씽킹이란 직접적인 경험을 중요시하고, 사람들이 아닌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며, 문제의 해결책을 다양한 곳에서 찾는 것이다. 즉, 주관적 사고를 위한 뇌훈련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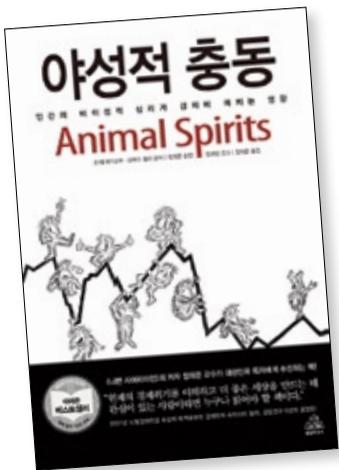


## 야성적 충동 - 인간이 비이성적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자 조지 애커로프, 로버트 실러, 로버트 실러 | 역자 김태훈 | 감수 장보형 | 출판사 랜덤하우스코리아

현재의 금융위기는 심리적 요소가 개인과 국가의 부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고통스런 진실을 보여준다.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에서부터, 자본시장의 자신감 붕괴에 이르기까지 ‘야성적 충동’은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야성적 충동’은 경제사상가 존 케인스가 인간의 비경제적 본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처음 언급한 것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애커로프와 예일대 경제학 교수 로버트 실러는 케인스의 이런 생각을 최근 6년간 진행된 세계 경제 흐름에 대입시켜 그 실체와 중요성을 명쾌하게 복원해내고 있다. 본문은 금융위기를 낳은 우리의 경제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제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고 과감한 시각을 제시한다.



## 청춘불패: 이외수의 소생법

저자 이외수 | 그림 정태련 | 출판사 해냄출판사

끝없는 불황과 경기침체로 움츠러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외수의 소생법 『청춘불패』. 우리가 남몰래 숨기고 있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말끔하게 해소해주는 이외수식의 생각이 펼쳐진다. 베스트셀러인 ‘이외수의 생존법’ 「하악하악」의 연장선상에 있는 메시지를 담은 『청춘 불패』는 우리 가슴속에 잠들어 있는 ‘청춘’의 존재를 일깨워 스스로 활력과 희망을 재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안에 갇혀버린 이에게 넓은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제1장 「백조면 어쩌하고 오리면 어쩌한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치킨 이에게 희망을 발견하는 법을 전하는 제2장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아픔을 느낀다」. 막다른 길에서 조금해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는 여유를 담은 제3장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자신에게 숨겨진 세상의 모든 가치를 찾는 제4장 「그대가 그대 인생의 주인이다」.



한인뉴스는 대사관과 함께 세계경제와 인도네시아의 경제흐름을 한 눈에 보고 한인기업인들의 작은 길잡이가 되고자 대사관에서 매주 정리되고 있는 <경제주간리포트>를 교민들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제지표/경제동향

### ● Sri Mulyani 재무부장관, 중앙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

Sri Mulyani 현 경제조정부장관 겸 재무부장관이 중앙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됐다.

경제전문가들은 동 장관이 재무장관, 경제조정부장관을 역임하고 IMF 등 국제금융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므로 중앙은행 총재직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동 장관이 금융기관 개혁을 이끌어나가는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동 장관의 부채시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금융기관의 개혁이 후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동 장관이 중앙은행 총재가 된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로 금융감독기관 일원화와 시중은행 금리 인하 추진을 꼽았다.

또한 재무부장관직을 사임하기 전 금융기관들의 개혁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인니 증시 분석 - 다나렉사 경제연구소

최근 인니 주식시장은 매우 큰 발전을 이루었다.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연초대비 43.9% 증가했으며 이웃국가인 말련, 싱가포르, 태국 보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인니 증권시장은 세계에서 유래 없는 고성장을 하고 있으나 가장 최근의 주식시장 하락세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인니 증권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니 경제의 기초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한다. 내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패턴에 이끌려 가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루피아 가치가 하락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인니 경제는 불확실성이라는 악재를 생산해 내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이야말로 인니 경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며 자카르타 증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현재 자카르타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GDP의 21.7%에 불과하다. 90%에 육박하는 말련, 40%의 태국, 140%의 싱가포르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인니 주식시장에는 단지 396개의 회사만이 상장한 상태이다. 이 또한 말련의 977개, 싱가포르 637개, 태국 476개에 비하면 작은 수치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인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내국인 투자자가 전체 인구의 0.1%인 30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웃 국가인 말련은 전체국민의 12.8%인 3백만명이 자국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인니는 내국인 투자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각 회사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외국발 관측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될 것이다.

- 다나렉사 경제연구소, Purbaya Yudhi Sadewa

### ● SENADA, 경제위기가 봉제산업에 미친 영향 작은 것으로 평가

USAID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SENADA(Indonesia Enterprise and Agriculture Development Activity)의 Ferry 산업분야 고문은 세계 경제위기가 진행중이나 인니내 봉제산업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세계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출 불륨이 줄었을지라도 생산지가 변경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 고문은 인니 봉제산업이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인니가 여전히 세계 9대 섬유제품 생산국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2008년 말 인니 전체 수출물량이 감소했을 당시에도 인니 섬유산업은 1.08% 성장을 보였으며 세계 봉제 수출물량의 2.5~3%를 담당했다.

Kurnia International Garment Training Center 대표는 인니 봉제 산업이 흡수하고 있는 인력이 300만명에 이르며 훌륭한 생산시설과 풍부한 인력으로 향후 더 큰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 정부와 국회, 특별경제구역 법안 9월 중 발표 약속

정부와 국회는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안을 9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다.

Mari 무역부 장관은 동 법안 검토를 위한 특별팀 구성과 8월 회기 중 검토 완료,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에 대해 국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2009.7.4 휴회하며 2009.8월에 마지막 회기를 시작하게 된다.

동 법안에는 특별경제 구역 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허가 간소화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다.

### ● 2009 Creative Product 박람회 개최

6.26(금)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서는 2009 Creative Product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SBY 대통령은 영부인 Ani 여사와 함께 개막식에 참가해 현재 농업, 공업, 전통적 서비스업이 인니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으나

미래에는 Creative Product가 인니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광과 Creative 산업이 대규모의 고용시장 창출과 빈곤퇴치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 박람회에서는 Creative Product의 전시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미나 및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제품들의 상담을 포함 문화공연 및 예술품 경매, 영화상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 무역부, 블랙베리 불법유통 감독 강화 예정

인니 무역부는 인터넷이 가능한 통신기 기인 블랙베리의 인니 내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특별팀을 구성하여 이의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특별팀은 직접 시장에 투입되어 유통을 감독하게 되며 판매되고 있는 블랙베리의 인니어 제품설명서, 품질보증서 구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특별팀은 무역부 현행 규정상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포함한 특정제품들이 인니 내에 적어도 6개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블랙베리의 서비스 센터 운영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수라마두대교 이용 버스, 사전허가 필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긴 교량인 수라마두대교가 개통된 후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버스는 수라마두대교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버스 차장이 관리자를 속이고 건너려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라마두 대교 관리자에게 뒷돈을 주고 통과하려는 버스가 늘어날 수도 있어 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 ● CISI,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의 역할 발표

Jusuf Wanandi CISI(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부소장은 Jakarta Post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동 부소장은 G-20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한, 중, 일, 인니, 호주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상호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특히 2010년도 G-20 의장국이 한국이니만큼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시대적인 G-7,8을 대체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의견을 서방에 전달하기 위해 G-20내 동아시아 회원국들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 무역부, 전자·통신 제품판매 위해 서비스 센터 설치 의무화

인니 무역부는 모든 전자·통신제품 판매 시 적어도 6개의 서비스센터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장관령을 발표했다.

동 장관령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09.8.26 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무역부는 인니어판 제품설명서와 품질보증서 등록의무 역시 계속될 것이나 현행의 지방정부(군수, 시장)에게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인 무역부 소비자보호국으로 직접 등록을 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 ● 무역부, 2010년부터 전 제품 SNI 의무화 예정

Imam 인니 무역부 제품및서비스감독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니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SNI(인니 산업표준) 인증 의무화를 2010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 국장은 SNI 마크 위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부와 산업부의 공동 감독이 전개될 것이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감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SBY-Kalla 정부,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부채 기록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SBY 대통령과 Jusuf Kalla 부통령이 집권한 정부의 부채가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동 연합은 지난 5년간의 집권기간 동안 예산 중 부채 비율이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4년 국민 일인당 부채는 5,800만 루피아였지만 2009.1월에는 일인당 7,700만

루피아로 증가한 셈이다.

또한동 연합은 SBY 정권이 2004~2009년 집권 기간동안 보조금 억제 정책을 폈다고 평가했다. 2004년 정부보조금은 GDP의 6.3%였으나 2009년에는 GDP의 0.3%에 그쳤다.

#### ● 인니 해외노동자 대회 자카르타 개최

노동 NGO Migrant Care는 이주근로자연합(IMWU), 홍콩 인니 근로자연합(KOTKHO), 말린 인니 노동자연합(UNIMIG), 아태지역 인니 노동자연합(ATKI)과 함께 자카르타에서 연합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600만 인니 근로자를 대변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인니 해외근로자, 특히 가사 도우미직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차별이 조속히 철폐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홍콩에서 일하기 위해 2,730만 루피아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불공정한 규정이 삭제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국관계

#### ● e-Trading, 온라인 주식거래 시장에서 약진

PT e-Trading Securities가 기존 인니 증권회사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던 온라인 주식거래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다.

신재원 사장은 온라인 주식거래시스템인 e-Trading을 통해 국내 소규모 투자자들이 쉽고 안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현재 인니 주식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내국인 투자자의 저변확대 의지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 사장은 '09.5월 현재 25,000명의 고객이 e-Trading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35,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내 인니 근로자 고용 안정 약속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일하는 인니 근로자들이 미래가 밝으며 이에 대해 인니가 격

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16(화) 대사관 하형소 노무관은 한국경제가 회복중이기 때문에 취업시장의 상황도 좋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대량 해고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에서 근무지 변경을 신청한 90~97%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허용기간인 2개월 안에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취업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지난 3월 인니 국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SBY 대통령이 부탁한 사안이기도 하다.

6.10 현재 인니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총 15,000개의 일자리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는 일자리를 원하는 인니인 근로자보다 많은 수이다.

### ● 현대 모빌 인도네시아, 신차 i2.0 인니 출시 예정

PT Hyundai Mobil Indonesia(HMI)는 해치백 스타일의 신차 i2.0을 오는 7월 제 17회 인도네시아 국제 모터쇼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Jongkie 대표는 현대 i2.0이 2009년 하반기부터 판매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내 자동차 시장의 경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니 소형차 시장 역시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판단하고 추가적인 소형차의 판매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인니에서 판매될 현대 i2.0은 인도 생산품으로 완성차 형태로 인니에 수입된다.

### ● 인니 환경부, 환경 유해물질 재수출건 한국정부와 협의 예정

인니 환경부는 바탐사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를 통해 유해 산업폐기물로 구분되어 있는 페로센드의 한국 재수출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로 했다.

문제가 된 페로센드 3,800톤은 PT Jace Octavia Mandiri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했으며 인니 정부는 동 회사에게 페로센드의 재수출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동 회사는 페로센드가 유해물질이 아니라며 환경부의 두차례에 걸친 재수

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Ilyas 환경부 법률국장은 페로센드의 재수출은 수입업자의 의무라고 밝히고 수입업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 바셀협약 사무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한국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인도네시아 협력 증진에 합의

한-인니 양국 정부는 무역, 교육, 인적교류 면에서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합의했다.

SBY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인니 근로자문제, 관광, 교육, 임업, 식량 및 북핵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특히 한국 정부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37,000명에 달하는 인니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인니 근로자들이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해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하고 인니 근로자들 중 90%가 직업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SBY 대통령은 관광 분야에서는 매년 동남아를 방문하는 300만명의 한국 관광객 중 10% 만이 인니를 방문하고 있다고 말하고 더 많은 한국인이 인니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했다.

디노 대통령 대변인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니 산림 분야에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두 정상이 산림 개발에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청정개발체제 내의 산림 개발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비하게 된다.

## 정치동향

### ● 대선후보들, 보조금 정책 계속 시행될 것임 약속

6.25(목) Metro TV의 대선후보 대담회에 참가한 후보들은 향후 보조금 정책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SBY-Boediono 후보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보조금 정책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유류보조금의 경우 향후 축소

될 수는 있겠으나 폐지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의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이 잘못된 대상에게 지급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JK-Wiranto 후보는 필요에 따라 보조금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급 대상자는 그 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등유 등에 대한 유류보조금과 관련, 등유 사용이 향후 가스 사용으로 대체될 것이므로 전체 보조금의 규모는 축소될 것이나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선관위, 주민등록증 확인을 통한 투표 허용에 난색 표명

6.22(월) 빨렘방 선관위측은 선거인단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 투표에 참가하게 된다면 관리 및 감독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한사람이 여러번 투표할 가능성이 생키며 결과적으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투표소에는 선거인단명부 등록자 2%분의 투표용지가 여분으로 준비되어 있을 뿐이다.

### ● 선거감독원, JK-Wiranto 선거캠프에 경고장 발부

6.24(수) 선거감독원(Bawalslu) 찌르본 지부는 JK-Wiranto 선거캠프가 업무차 방문한 곳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가 있다고 밝히고 동 선거캠프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동 지부는 선거캠프 측이 6.23(화) 찌르본의 한 이슬람학교에서 선거운동 포스터와 달력을 배포했으며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증거 입수시 동 사건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감독원 솔로 지부는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JK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솔로 지부 측은 녹화 테이프와 사진을 증거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 ● 다수의 공기업 직원들,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

인니 선거감독원(Bawaslu)은 대통령 선거 운동명단에 포함된 공기업 임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상기 명단에 포함된 임원들은 자진 사퇴와 함께 선거 운동을 중단해야할 처지가 되었다.

6.17(수) 선거감독원은 SBY-Boediono, Jusuf Kalla-Wiranto 선거캠프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1명의 공기업 임원 중 12명을 소환했다. 이 중 8명의 공기업 임원들이 출두 명령에 응했으며 이들은 국영석유회사의 Umar, Sumarsono 이사, 잠소스텍의 Rekson이사, Telkom의 Tanri 상임이사, 인니 철도공사의 Yachya 이사, 식량국 감독협회의 Sulatin 대표 등이다.

● **대선후보들, 중소기업 활성화 공약 발표**

각 후보들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Megawati-Prabowo

- 농업, 어업, 전통공업, 영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 확대
-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자본 확충
- 불법적인 백화점 건설 금지, 재래시장 보호 및 현대화
- 도시의 지역 중소기업 발전 지원, 지원 기관 확충 및 시장접근 용이성 제공

SBY-Boediono

-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화
- 중소기업 생산품의 품질 향상
- 업선된 편제제공으로 중소기업 생산품의 경쟁력 향상
- 광의의 시너지 부여, 대기업과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JK-Wiranto

- 재래시장 개선
- 자본, 기술, 시장의 네트워크
- 전통제품에 대한 정부지원, 경쟁력 제공
- 인프라 지원 및 인적자원 개발

● **Kalla-Wiranto 후보, 당선 가능성 상승**

정책 전략수립센터(Puskaptis)는 6월 중순 조사된 Kalla-Wiranto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한 달 전 조사결과 보다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Husni 소장은 지난 5.11~17 실시된 조사에서 Kalla-Wiranto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12.37% 였으나 6월 조사결과 17.29%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 SBY-Boediono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5월 57.39%에서 6월 52.15%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종교문제(SBY-Boediono 후보 부인의 질밥 미착용)와 연합정당의 통합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egawati-Prabowo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5월 24.26%에서 6월 22.17%로 소폭 하락했다.

국제관계

● **인니 교통부, 가루다항공 일본취항 횡수 증가 요청**

인니 교통부는 가루다항공의 자카르타-토쿄 취항을 주 7회에서 13회로 늘려줄 것을 일본 항공당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직 재무부장관 출신 Jusuf Anwar 주일 인니대사는 현재까지 인니-일본 간 항공운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며 항공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루다의 취항 횡수를 늘리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캐나다 노선을 책임지고 있는 Fahmi 가루다 항공 부사장은 현재 협회가 진행중이며 일본 항공당국이 양국간 항공협정에 의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 **노동이주부, 인니인해외근로자 말련 송출 중단 검토**

인니 노동이주부는 자국근로자의 말련 송출 일시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이주부는 6.22(월)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와 협력하여 동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러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이유는 국내 실업을 증가 및 외화수입의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니 해외근로자는 매년 90조 루피아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예산

의 10%에 달하는 액수이다.

노동이주부는 이번 송출 중단 검토가 말련에 거주하는 인니 근로자에 대한 학대가 빈번히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말련에서 일하고 있는 인니 근로자는 250만명에 이르며 평균임금은 한 달에 600링깃(약 170달러) 정도이다.

사건사고, 사회 문화 관련

● **자카르타 지방 경찰청, 가짜 휘발유 주의 요망**

자카르타 지방 경찰청은 땅그랑에 위치한 가짜 휘발유 공장을 급습하여 현장에서 휘발유 흡착기를 비롯, 바코드 인쇄기, 여러 상표의 휘발유 병이 든 수백개의 자루를 발견하고 용의자 한명을 검거했다.

동 경찰청은 소비자들이 가짜 휘발유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공식 휘발유 판매처를 사용해 줄 것과 구매시 휘발유의 색깔을 주의 깊게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를 찌르는 듯한 자극적인 냄새가 날 경우 가짜 휘발유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식약청, 빼당지역 내 불법화장품 유통 경고**

6.15(월) 인니 식약청(BPOM)은 서부 수마트라의 빼당 지역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12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 중 중국산 브랜드인 Qianyan은 수입등록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수은이 함유된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으며, QL Day Cream은 식약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임에도 시중에 유통되었다. 또한 유명 브랜드인 폰즈사의 Pond's Detox Complete Beauty Make Up Kit는 식약청 미등록 제품이었다.

식약청은 적발한 제품을 모두 폐기처분 하였고 관련 제품들에 대한 회수 명령을 관련 회사들에게 발송했다.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rn.net.id

##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관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매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딤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버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글라빠가당)	471	804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고려정사	769	5392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	-----	------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Kris Kim 7279 1555  
Hair Perm 7280 1404

##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짜까랑) 8990 1911

##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짜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고려가든 (024)321 992  
고목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 552 1210  
모나리자 8990 9570  
몰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버까시 서울 8895 7604  
산들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447 414  
소양강 897 2231  
송도(리삿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삿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어울림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 4585 1156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 4586-6415 F: 4586-641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 각종 인허가 대행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Korean Traditional Grill

## 고주몽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 개시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 4586-6415 F: 4586-641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아이니 갤러리 ini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가구  
수출용 Life Style 모던 가구  
시애틀의 고급 우븐형 가구  
white & Blackgold 가구  
복합층의 특장 DVD

Interior 인테리어

공간적 특성을 연출하는 Design,  
행복한 감성적인 정물 시공  
공기 탄력적인 소재 및 친환경  
소재 사용 City 감각의 Elegance 한  
Color 스타일, 철저한 모던 라이프 스타일  
아이니 가구

Jl. Kembang Permai Blok I/5 Jakarta Barat  
Telp. 021 5814690 / 021 98202086  
0812 19285578 / 08521 7731003  
email : inepark@indosat.net.id

2002 레스토랑	5940	4189
장터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Hits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브찌까랑)	8990	6230
하나정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강(One Pacific Place)	000	0000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스피드뉴스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오토맥스		

●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브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7082	0051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앤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박학천 논술	3342	7540
뽀뽀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쁘까리와짜)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 항공

대한 항공 ( 시내 )	521	2180
( 공항 )	550	2389
GARUDA ( Call Center )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 ●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 발리 (지역번호 0361)

###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 빌라, 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롱기궁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 인내 신종인플루엔자(H1N1) 환자발생

### 1. 동포 주의사항

- 2009.6.25(목) 인도네시아 보건부(Siti Fadilah Supari 장관)는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2명이 발생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동포 여러분께서는 건강 및 위생에 특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신종 인플루엔자 행동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둘째,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2. 발병현황

- 최초 환자
  - 호주 퍼스에서 온 남성 조종사(37세), 6.19(금) 인플루엔자 전문 Sulianti Suroso Jakarta 병원에 입원 및 격리중
- 두 번째 환자
  - 영국 시민권자로서 호주 멜버른 거주 여성(22세), 6.19(금) 발리방문, 발리 Sanglah Denpasar 병원에 격리 치료중

### 3. 인도네시아 보건부 대응조치

- 인도네시아 보건부 당국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인도네시아 전국 보건당국자에 대한 경고 및 대응강화 지시
  - 병원, 연구시설, 보건시설 등 관련 설비 가동
  - 대응 인력·물자확보 강화
  - 공항, 항만내 검역체계 강화
  - 관련 정보수집·공유, 통신체계 강화

## 한국대사관 관세관 업무 안내

### ○ 통관애로사항지원, 관세관련상담, 민원해결 지원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품목분류 등 관세제도 상담
- 수출입 시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한 통관애로·마찰 해소지원
- 특히 조정관세부와 관련 인내 세관당국 간 조정역할 수행

### ○ 한-아세안 FTA 활용제고 지원

- 원산지 규정, 양허세율, 특혜통관제도 등 상담
- 원산지 증명서(C/O) 발급관련 애로해소 지원 및 상담
- FTA 특혜통관 시 애로·마찰해소 지원 및 FTA 비즈니스 모델 상담

### ○ 기타 관세 및 한-아세안 FTA 활용 관련 애로 및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향후 한인회, KOTRA, 한인 상공회의소, 통관업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예정 (「현지 통관협의체」 구축, 설명회 개최 등)

### □ 연락처

TEL : 62-21-520-1915  
 HP : 0811-993-1325  
 FAX : 62-21-525-4159  
 E-mail : leeds@customs.go.kr

##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1층  
 지도강사 : 김명지 월화차회 회장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 한국인업체 인내종업원 및 인내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김성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여름성수기, 여름방학 및 휴가기간을 맞이하여 대한항공에서 다음과 같이 서울행 추가편을 운항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교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가편에 대해서는 비수기보다 저렴한 특별 사은 세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 발권 조건을 적용하여 이용하실 수 있는 가격 혜택으로, 자세한 가격은 가까운 여행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운항편 : 특별 할인 가격 운영**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626	화목토	09.7.14	09.8.18	333P	자카르타	23:45	인천	08:50*1
KE625	화목토	09.7.14	09.8.18	333P	인천	17:40	자카르타	22:40

\*정부인가조건임

**기존운항편: 스케줄 변동 없음**

편명	운항일	기종	출발		도착	
KE628	매일	777P	자카르타	22:05	인천	07:10*1
KE627	매일	772P	인천	15:45	자카르타	20:45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 021)520-1915
- 핸드폰 : 0811-183-3164
- E-mail : jkt\_kimhoil@msn.com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당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사(한인회 자문변호사)

MP. 0816-1911245  
 Tel. 021) 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가루다인도네시아가 2009년 7월부터 자카르타-인천 간 직항노선을 선보입니다. 가까운 여행사나 24시간 콜센터(0804180780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루다항공 하계 운항편**

노선	항공기명	출발 (현지시각)	도착 (현지시각)	운항일
자카르타 - 인천	GA 898	23:25	08:30 (익일)	화,금,일
인천 - 자카르타	GA 879	10:35	15:35	월,수,토



www.garuda-indonesia.com

#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최상의 만족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정품만을 취급하며  
한국 체인점에서도 **100% 품질 보장**

- ◆진주 전품목 수출 및 현지도매 ◆다이아(GIA 감정서 외 제외)
- ◆셋팅물 일체 ◆선물용 진주(Rp20만 부터)
- ◆행운의 열쇠 및 회사로고 주문 제작

갤러리(위차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 0816-1390-333



술에 취한 두 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다.  
한 주정꾼이 말하기를 “멋진 밤이야, 저 달 좀  
봐.”  
또 다른 주정꾼이 술취한 친구를 쳐다보며 말했  
다.  
“네가 틀렸어. 달이 아냐, 그건 해야.”  
두 주정꾼의 말다툼은 시작되고...마침 길가는 사  
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저기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달입니까, 해  
입니까?”그러자 길가는 사람 왈...

“미안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지 않아  
서...”

웃음과 유머는 사회생활의 인간관계를 형성하  
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머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순하 암기력이 뛰어나다기보다  
위트가 넘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나  
순간의 대처능력도 뛰어납니다.

유머 한마디쯤 익혀두세요 가벼운 유머 한마  
디로 하루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남에게 들은 유  
머가 재미있다면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바로 메  
모해 보세요. 내가 들었을 때 재미있는 유머는 시  
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재미있습니다. 자신 있  
게 할 수 있는 유머 한두 마디는 사람을 만나는 일  
을 즐겁게 합니다. 또 그로 인해 만나는 사람들에  
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유머는 남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우  
울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활용하면 기분이  
전환됩니다. 메모를 읽다 보면 예전에 웃던 생각  
이 나서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그때 큰소리로  
웃으면 됩니다.



#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 Head Office

(Jakarta)

T 62-21-525-2258

F 62-21-525-0141

## Factory 1

(Curug-Tangerang)

T 62-21-598-7513/0152

F 62-21-598-0860

## Factory 2 & Marketing Office

(KBN Cakung-Jakarta)

T 62-21-440-3926

F 62-21-440-3944

## Marketing Office E-mail

dji\_mkt@cbn.net.id

bhjangik@indosat.net.id

kendji@cbn.net.id

PT. DONG JUNG INDONESIA POLYBAG MANUFACTURER  
ISO 9001 : 2000 ISO 14001 : 2000

# HYUNDAI TRUCK & BUS



**KotyBus**  
KORINDO MOTORS

**Berjelajah Seru Bersama Koty !**



**HD MIGHTY  
TRUCK**

**125PS**  
TURBO - CHARGED INTERCOOLER  
EURO II

 **KORINDO MOTORS**

**CONTACT : (021) 596-0445**